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辛 泳 周 教 授 指 導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金壽增의 谷雲九曲 경영과  
문학 활동에 관한 연구

2016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 文 學 科

崔 恩 慧

金壽增의 谷雲九曲 경영과  
문학 활동에 관한 연구

辛 泳 周 教授 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 文 學 科

崔 恩 慧

# 認 准 書

崔恩慧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6年 5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 文 概 要

谷雲九曲은 산수를 탐미하고 주자의 무이구곡을 흠모한 谷雲 金壽增(1624~1701)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己巳換局 이후로 絶俗하여 자신의 은거지를 경영하였다. 김수증이 곡운에 구곡을 경영한 것은 단순히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정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곳을 자신의 정신세계와 맞아떨어지는 최적의 공간으로 경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김수증이 단순한 생활의 공간 경영을 넘어선 입체적이고 상징적인 문화 공간을 경영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김수증의 구곡 경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谷雲集』을 중심으로, 그의 곡운 경영과 문학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당시 사대부들의 구곡가 작업은 단순하게 시를 모방하는 작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신적 산물을 담아내는 작업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김수증은 그의 조부인 김상헌에서부터 내려온 은거지향을 구곡 경영을 통해 실천하였고 이로써 자신만의 은거지를 구축하였다. 이는 당쟁의 화를 당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김수항과 김수홍 형제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또한 김수증의 화음동정사 경영은 山水 속에서 자연만 완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리학적 내면세계를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이곳은 후에 노론계 사림들에게 귀거래적인 장소가 된다. 김수증이 주변 인물들의 동조 속에 구곡을 경영하고 이를 향유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간에 주고받은 영향과 여러 제유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 目 次

## 論文概要

I. 序論 .....	1
1. 연구 목적 및 방법 .....	1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3
II. 金壽增의 성장 배경과 山水에 대한 관심 .....	6
1. 당대의 정치현실과 金壽增 .....	6
2. 山水에 대한 관심과 은둔지향 .....	9
III. 九曲의 경영의 전통과 谷雲九曲 .....	14
1. 朱子の 영향과 조선 九曲歌의 형성과정 .....	14
1) 朱子の 武夷九曲歌 .....	14
2) 16~17세기의 九曲歌의 변모양상 .....	22
2. 은둔 실현과 九曲경영-谷雲九曲 조성과 谷雲九曲歌 10首 .....	26
IV. 谷雲九曲에서의 문학 활동 .....	41
1. 화음동정사지 조성 및 문학 활동 .....	41
2. 谷雲 시기 창작한 시문에 대한 분석 .....	55
V. 谷雲九曲의 중심의 시문창작의 문학사적 의의 .....	63
1. 壯洞 金門의 시중심의 문학적 교류 .....	63

2. 谷雲九曲에 대한 諸家の 기록들 .....	72
1) 茶山 丁若鏞의 춘천기행-「汕行日記」 .....	72
2) 여러 제유들의 기록들 .....	82
<b>VI. 結論 .....</b>	<b>87</b>

參考文獻

ABSTRACT

# I. 序 論

## 1.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곡운 김수증이 현실정치에 대한 이상적 기대를 접고 谷雲으로 물러날 것을 계획한 후에 이를 실행해나가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아울러 谷雲을 은둔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구곡을 설정하고 곳곳에 공간의 의미를 부여하여 새롭게 이야기를 입혀줌으로써, 이곳이 단순한 생활의 공간을 넘어선 입체적이고 상징적인 문화의 공간이 되도록 하였던 측면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김수증이 여기에서 나아가 이 공간을 토대로 문학 교류의 활동의 외연을 넓혀 조선후기 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문화 현상을 보여주었던 점에 대해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수증의 곡운구곡을 비롯해 조선후기 주자학에 영향을 받은 성리학자들은 구곡 경영을 통해 자신들의 심신수양을 하는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 곳곳의 자연경관을 소재로 하여 그들의 심신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정신문화를 담아내는 행위이다. 즉, 구곡 경영은 성리학적인 요소와 유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 단순히 자연 속에서 은둔하여 자연을 완상하는 마음이 담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신을 반영하는 문학적 정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구곡 경영은 성리학적 관념을 통해 하나의 장소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연구는 조형예술과 공간적 의미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sup>1)</sup>

---

1) 유준영, 「곡운구곡도를 중심으로 본 17세기 실경도발전의 일례」, 『정신문화연구』 3,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 , 유준영, 「조형예술과 성리학 : 화음동정사에 나타난 구조와 사상적 계보」, 『한국미술사논문집』 1, 한국학 중앙연구원, 1984., 이효숙, 「장소성 개념을 통해 살펴 본 <무이도가>와 <곡운구곡가> 비교」, 『동아시아고대학』 제2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자와 성리학에 영향을 받은 곡운구곡에 대한 조형예술과 장소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해나갔다.

본고에서는 谷雲 金壽增의 구곡 경영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 활동 및 문학적 영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谷雲 金壽增(1624~1701)은 조선 중기에 활동한 성리학자이며 은거 은둔하였던 선비이다. II장에서는 먼저 김수증의 성장 배경과 山水에 대한 관심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谷雲이 활동했을 당시에는 외적으로 丙子胡亂과 내적으로는 두 차례에 걸친 禮訟문제로 당파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이다. 이때 별열가문의 중심인 김수증의 일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김수증이 華陰洞에 들어가 은둔을 계획하게 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고려 말 유입되기 시작한 朱子の 武夷權歌와 武夷九曲 경영이 조선 사대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九曲 및 九曲圖 창작의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고, 아울러 주자의 성리학에 기반을 둔 당시의 국가이념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유행된 조선 사대부들의 九曲圖 와 구곡 경영 방식과 곡운 김수증의 구곡 경영 방식에 대해 살필 계획이다. 또한 구곡 경영 속에서 창작된 〈谷雲九曲圖帖〉 작업과 김수증의 일가들의 「谷雲九曲歌」의 활동을 통해 김수증의 谷雲九曲의 공간을 경영과 詩文 창작을 통해 은거하는 자로서의 한가로운 정서와 곡운구곡의 문학적 정취를 노래하였던 일련의 활동을 살필 것이다.

IV장에서는 기사환국 이후의 화음동정사지 조성을 중심으로 주자의 성리학적 관념을 김수증이 장소에 命名한 작업을 기물을 소재로 한 작품 중심으로 분석하고 『谷雲集』 卷 1~2에 실린 김수증의 시문을 통해 은거 의식의 변모 양상과 곡운 경영의 일상을 살펴볼 계획이다.

V장에서는 김수증의 일가들과 교류한 시문교류와 다산 정약용이 「汕行日記」를 통해 남긴 의문점과 ‘다산 곡운구곡가’ 작업을 살펴보고 여러 제유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농수정’을 중심으로 한 김수증과의 시문의 교류 활동을 통한 김수증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서술할 계획이다.

##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金壽增의 隱居文學 및 谷雲九曲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유준영<sup>2)</sup>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그는 구곡도의 발생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김수증의 화음동 은거가 미술사적, 사상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또한 정사지가 성리학적 자연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학적인 측면보다는 성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조형예술적 분석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그가 현장조사에서 華陰洞精舍遺址를 발견하고 <谷雲九曲圖>가 實景山水畫임<sup>3)</sup>을 최초로 밝혀내면서 곡운구곡 지역의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었다.

황인건<sup>4)</sup>은 유준영의 연구와 달리 김수증의 문학사적 의의에 중점을 두었다. 『谷雲集』 3, 4권을 중심으로 김수증의 산수문학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특히 1689년에 발생한 己巳換局을 기준으로 김수증의 은거시기를 1차, 2차로 나누어 산수문화의 변모양상을 연구하였다.

이경구<sup>5)</sup>는 논문에서 ‘壯洞金門’ 일파들의 문학 활동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다. 그는 조선 후기 김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청음 김상헌의 후손으로서 김상헌에 버금갈 정도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김수증의 문학 활동을 살피었다. 또한 김수증이 당대의 문예 흐름 속에서 조선 후기 은거 문학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2) 유준영, 「곡운구곡도를 중심으로 본 17세기 실경도발전의 일례」, 『정신문화연구』 3,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

유준영, 「조형예술과 성리학 : 화음동정사에 나타난 구조와 사상적 계보」, 『한국미술사논문집』 1, 한국학 중앙연구원, 1984.

3) 유준영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谷雲九曲圖>가 김수증이 이 지역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화가 曹世傑에게 주변의 실경을 그리게 한 實景山水畫임을 최초로 밝혀내었다. “谷雲九曲圖는 實景山水畫 春城·華川の 溪谷과 地形일치”, <경향신문>, 1981년 4월 14일, 제 11면.

4) 황인건, 「谷雲 金壽增의 山水文學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5) 이경구, 「17~18세기 壯洞 金門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경구, 「곡운 김수증의 은거 생활과 문예 활동」, 『한국학보』, 2004.

이종호<sup>6)</sup>는 이경구와 마찬가지로 ‘壯洞 金門’의 은둔지 경영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김수증의 문예취향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아울러 후대 장동김문 구성원 사이에서 교류된 문학 활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그들의 문예전통이 서법과 회화, 시문 창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수증의 문예취향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학이 그의 조카들에게 전수 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효숙<sup>7)</sup>은 ‘장소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장소로서의 구곡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주자의 「武夷權歌」와 김수증의 「谷雲九曲歌」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이를 토대로 구곡 문학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구곡과 관련한 문화를 향유하는 현상은 개인적 취향에 머물기보다는 집단들이 유대감을 형성하여 집단화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2편이 더 있다.<sup>8)</sup>

김인숙<sup>9)</sup>은 ‘산수관’을 중심으로 곡운구곡을 연구하였다. 그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곡운구곡이 조선 후기 노론계 인사들의 성리학적 이상향이 잘 표현된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곡운구곡이 성리학적 세계에 포섭된 자연체험의 표상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상으로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동안의 곡운구곡의 연구는 곡운구곡이 지니는 장소성의 의미, 농연형제에게 미친 학문적 영향 연구에 대해 논한 것이 많았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많았던 까닭은 다음과 같을 것이

6) 이종호, 「壯洞金門의 隱遁地(外圃) 經營과 金昌翁의 隱逸意識 : 梅月堂과 谷雲이 간 자리에 三淵이 등지를 틀다」, 『동방한문학 제32집』, 동방인문학회, 2007.

이종호, 「김수증의 문예지향과 가학전수」, 『대동한문학회지』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6.

7) 이효숙, 「장소성 개념을 통해 살펴 본 <무이도가>와 <곡운구곡가> 비교」, 『동아시아고대학』 제24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8) 이효숙, 「구곡 문학 연구와 장소성」,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국제어문학회, 2013.

이효숙, 「조선 후기 서인 노론계 문인들의 구곡시와 장소성」, 『국제어문』 제59집, 국제어문학회, 2013.

9) 김인숙, 「곡운 김수증의 산수관에 관한 연구 - 곡운구곡도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0, 동아인문학회, 2015.

다.

조선 후기 사림들에게는 ‘구곡’이라는 장소의 의미가 단순히 은거지가 아닌 그들의 성리학적 이상향이 집약된 상징적인 공간인 것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곡운구곡 경영에 대한 ‘장소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그의 조부에게 영향을 받은 문학의식을 곡운구곡 공간에서 극대화시켜 그의 후대에까지 전수시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주자의 무이구곡 연원을 통해 조선 구곡 경영과 김수증의 곡운 구곡 경영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둘째, 화음동 정사지 중심으로 김수증의 은거 의식과 은거지 경영에 대해 살펴본 후 셋째, 이곳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후대 사람들의 시문창작 활동을 통해 곡운구곡 경영이 조선 후기의 유기문학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II. 金壽增의 성장 배경과 山水에 대한 관심

### 1. 당대의 정치현실과 金壽增

金壽增(1624~1701) 조선조 중기 성리학자이자, 은둔선비이다. 그의 본관은 安東, 자는 延之이며 호는 谷雲이다. 척화파의 상징적 인물인 淸陰 金尙憲(1570~1652)<sup>10</sup>의 장손이며, 退憂堂 金壽興(1626~1690)<sup>11</sup>, 文谷 金壽恒(1629~1689)<sup>12</sup>의 형이다.

김수증은 김상헌의 장손으로 서인의 중심을 담당하던 가문에서 태어났다. 김수증의 가문은 일찍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서인의 수장인 尤庵 宋時烈(1607~1689)<sup>13</sup>과도 각별한 사이였다. 1650년(효종 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2년 후인 1652년에 익위사세마로 처음 관직에 나아갔다. 내직으로는 공조참

10) 淸陰 金尙憲(1570~1652)은 조선시대 문인이다. 그의 본관은 安東 자는 叔度, 호는 淸陰이다. 대제학과 각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丙子胡亂에 斥和를 주장하다 3년간 심양에 붙잡혀 억류되기도 하였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후사가 없었던 백부의 뒤를 이었다. 훗날 청음도 자식이 없자 형 金尙寬의 아들 光燦을 후사로 삼는다. 광찬은 淸州牧使 延安 金球의 딸을 맞아 7남 4녀를 두었고 그중 장남이 谷雲 金壽增이다.

11) 退憂堂 金壽興(1626~1690)은 조선시대 문인이며, 김상헌의 아들이며, 영의정 金壽恒의 형이다. 호조판서, 판의금부사를 역임하고 영의정에 올랐다. 그러나 慈懿大妃의 상복문제로 현종이 즉자 춘천에 유배되었다가 경기도 양주에 은거하였다가 다시 서인이 재집권하자 영의정에 올랐다. 하지만 1689년 己巳換局으로 남인이 다시 집권하자 유배되어 유배지에서 사사되었다.

12) 文谷 金壽恒(1629~1689)은 金壽興의 형이다. 예조판서, 육조의 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하지만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재집권하자 탄핵되어 진도로 유배되어 사사된다.

13) 尤庵 宋時烈(1607~1689)은 조선시대 문인이다. 그의 본관은 恩津 자는 英甫, 호는 尤庵이다. 노론의 영수이자 주자학의 대가로서 栗谷 李珣의 학통을 계승하여 畿湖學派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退溪 李滉의 二元論의인 理氣互發說을 배격하였다. 1674년 仁宣王后의 상으로 慈懿大妃의 복상문제가 제기되어 서인인 송시열은 大功說(9개월)을 주장하였으나 남인이 내세운 暮年說(1년)이 채택됨으로써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 뒤 庚申換局으로 남인이 실각하게 되자 벼슬에서 물러 나게 되었다. 이 무렵 제자 尹拯과의 의견대립이 악화되어 서인은 소인과 노론으로 나뉘었다. 그 뒤 정계에서 은퇴한 송시열은 1689년(숙종 15년) 왕세자 책봉을 시기상조라는 상소를 했다가 제주도에서 유배되고 국문을 받으러 올라오는 도중 정읍에서 賜死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宋子大全》, 《尤庵集》, 《宋書拾遺》, 《朱子大全劄疑》 등이 있다.

판에 이르고 외직으로는 평강현감 성천부사를 지냈다.<sup>14)</sup>

1659년(현종 1년), 孝宗의 사망 이후 조정에서는 仁宗의 繼妃인 莊烈王后 趙氏<sup>15)</sup>의 상복문제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당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己亥禮訟’이 시작된다. 이때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효종의 喪에 대하여 趙대비의 服制를 논하면서, 昭顯世子の 喪을 예로 든다. 이미 趙대비가 소현세자에 대한 장자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아우인 효종의 喪에는 장자복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許穆을 비롯한 남인들은 『儀禮』에 근거하여 장자는 곧 적처소생으로 계승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sup>16)</sup> 따라서 효종이 次子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거듭되는 의견 대립 후에 결국에는 당시 정치의 중심인 서인의 의견대로 1년 喪을 하였으나, 허목의 끈질긴 반론으로 ‘甲寅禮訟’의 빌미를 만들게 된다.

15년 뒤인 1674년(현종 15년), 孝宗妃인 仁宣王后가 喪을 당하자 서인의 金壽興, 壽恒형제 등은 효종비와 효종의 복제가 같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남인에서는 15년 전의 己亥禮訟과 연관시켜 거세게 반발을 하였다. 끊임없는 당쟁의 다툼 끝에 현종은 자신의 정통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659년의 기해예송의 복제와 함께 甲寅年의 복제를 문제 삼아 아버지인 효종을 차자로 인정한 서인에게 책임을 물게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1675년(숙종 1년) 김수증이 성천부사로 재임할 당시 동생 김수항과 송시열이 유배되고 만다. 이를 계기로 김수증은 성천부사를 사직하고 谷雲에

14) 『華川郡誌』, 화천문화원, 2008, p766.

15) 莊烈王后 趙氏(1624~ 1688)는 조선의 제16대 국왕인 인조의 繼妃이다. 본관은 楊州. 정식시호는 慈懿 恭愼徽獻康仁淑穆莊烈王后이며, 漢原府院君 조창원의 딸이다. 慈懿大妃로도 불린다.

16) 孝宗의 喪이 발생했을 때, 당시 조정의 견해와 다른 입장을 보인 최초의 인물은 尹鑰였다. 하지만 宋時烈을 비롯한 조정 관료들에게 일방적 비판을 당하여 윤희 역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논점은 잠복된 듯했다. 하지만 尹善道, 許穆등이 조대비의 복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예송논쟁이 전개되었다. 이봉규, 「조선후기 禮訟의 철학적 함의-17세기 喪服論爭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p.195.

들어가 籠水精舍를 짓고 기거하였다.

그러나 1680년 庚申換局으로 그의 아우 김수항이 영의정으로 관직에 복귀하고 김수증도 회양부사로 역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해에 숙종이 자신의 왕비가 죽자 노론의 閔維重의 딸 仁顯王后 閔氏를 繼妃로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인현왕후가 적자를 낳지 못하고 숙종의 후궁인 昭儀 張氏가 아들을 낳자 숙종은 이듬해 그 아들을 원자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 이때 영의정으로 있었던 김수홍을 비롯한 노론계 인사들은 아직 중전이 젊은데 후궁의 소생을 원자로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지만 숙종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자로 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삼고 소의 장씨를 회빈의 품계를 내린다. 이에 송시열과 노론계 인사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자 오히려 숙종의 미움을 사고 말았고, 송시열을 비롯해 김수항, 수홍 형제가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김수증은 다시 곡운으로 들어가 다시 은둔하게 된다.

1689년(숙종 15년) 서인의 영수인 송시열은 상소를 올려 숙종의 원자책봉을 잘못된 처사라고 상소를 올리게 된다. 이때 남인에서 송시열의 주장을 반박하는 상소를 올리고 이것을 계기로 己巳換局이 발생하게 되어 송시열의 관직을 삭탈시키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낸다. 송시열은 결국 유배지에서 서울로 압송되는 중 정읍에서 사사되고 더불어 서인의 김수항, 김수홍도 유배되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가문에 큰 화를 입는데 이에 1690년 김수증은 絶俗하여 다시 곡운으로 돌아왔다가 華嶽山에서 서남쪽으로 4~5리쯤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한 華陰洞으로 이주하였다. 이곳이 주자의 성리학적 관념을 통한 命名작업을 한 화음동정사지이다.

이후 甲戌獄事로 김수항이 복권되고 김수증에게도 벼슬이 내려졌으나 수증은 벼슬을 거절하고 화음동에 은거한다. 그 뒤 절속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석실에서 주자와 독서에 빠져 말년을 보내게 된다. 1701년 김수증이 81

세의 일기로 사망한다.

## 2. 山水에 대한 관심과 은둔지향

김수증은 젊은 시절 그의 형제들이 조정에서 적극적 정치활동을 펼치는 것과 달리 조용히 산수를 완상하고 즐기는 성품이었다. 그는 세속의 번잡함을 벗어나 산수로 돌아가 완전히 즐기는 것을 좋아했다.

이러한 성품은 그가 주로 지방의 현감자리를 역임하는 것과 매우 잘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덕으로 지방의 명산과 유적지를 두루 관람하기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산수 유람을 통해 느낀 감정을 작품으로 풀어나가 자신의 감회를 표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기사환국 이전에 기록한 유기들을 살펴본다면<sup>17)</sup> 김수증은 단순 산수의 풍광을 즐긴 감상만 남긴 것이 아니라, 지형 및 지리의 정보, 일자별로 정리한 산행을 통해 느낀 감회를 상세히 서술해 나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본다면 단순히 산수만을 좋아서 즐기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로도 산수 유람을 계속해오다가 狼川縣監에 재직할 당시 화악산 북쪽의 빼어난 풍광을 익히 듣게 되고 이를 통해 화악산 근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화악산의 별천지를 발견한 것은 김수증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된다. 하지만 바로 그곳을 탐방하지는 못하고 1670년 가을부터 서울에서 툼툼이 왕래하여 본래 지명인 ‘史吞’<sup>18)</sup>을 ‘谷雲’이라 이름하

17) 기사환국 이전의 작품은 대부분 산수를 유람한 유기로 이루어져 있다. 「遊戲靈山記」, 「靑龍山靑龍寺記」, 「七仙洞記」, 「重遊七仙洞記」, 「楓嶽日記」, 「遊白沙汀記」, 「山中日記」, 「遊松都記」 등을 통해 살펴보면 유람을 통해 산수를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

18) 또는 ‘實雲’으로 불리었다. 이때 발음은 시문/실운 이라고도 한다. 『華川郡誌』, 화천문화원, 2008, p662

고 7칸의 모옥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김수증은 마을사람들에게 서쪽에 있는 옛 터가 梅月堂 金時習의 집터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골짜기 부근의 한 곳을 김시습의 시어를 취하여 ‘採薇’라 이름 붙인다. 이러한 사실은 「谷雲記」<sup>19)</sup>와 송시열에게 쓰게 한 「谷雲精舍記」<sup>20)</sup>에도 드러난다. 그 후 5년 뒤인 1675년에 다시 草堂 세 칸을 짓고 편액 하여 ‘谷雲精舍’라고 이름하고 ‘籠水亭’을 지었다. ‘籠水’라는 이름은 송시열의 「籠水亭記」에도 나오듯이 崔致遠의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세속의 시비 소리 귀에 들까 두려워서, 일부러 유수로 산을 모두 에워쌌네)”의 시구에서 따온 것이다.<sup>21)</sup>

하지만 당시에 김수증만이 이렇게 먼 길을 오가며 은거지를 정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는 그의 아우 수항과 수홍도 은거를 하고 있을 시기였다. 그의 곡운 경영을 통한 은거생활은 단순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집안 내력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런 기록은 김수항의 기록에서도 살필 수 있다. 그 내용

19) 金壽增, 『谷雲集』卷4, 「谷雲記」“其西有一廢址 傳以爲五歲童子之基. … 又其東西. 皆有梅月公舊迹. 不數里而近. 近處一丘一壑. 無非當日杖屨所及. 而埋沒數百年. 令人慨然. 遂取公詩語. 名其後小谷曰採薇. 仍以爲棲止之所.”(서쪽에 옛터가 하나 있는데, 전하는 말에 五歲童자의 집터라고 한다. … 동쪽과 서쪽에 모두 梅月公의 옛 자취가 남아 있으니, 그 범위가 數理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 근처의 언덕 하나 골짜기 하나 모두 당시 매월당이 쉼처에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나 이러한 자취가 수백년이 흐르면서 모두 매몰되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慨然하게 한다. 마침내 공의 시어를 취하여 그 뒤쪽의 작은 골짜기를 ‘採薇’라 이름하고 머무를 곳으로 삼았다.)

20) 宋時烈, 이익성(역) 『宋子大全』卷142, 「谷雲精舍記」“此相傳以爲五歲童子之基. 蓋梅月金公生纔數月. 自能知書. 至五歲則於經傳子史. 無不通貫. 故當時目以五歲. 而至其長大. 猶以是稱之. 事俱載野史諸書. 世祖朝託迹緇流. 放情丘壑. 穢貺之墟. 瓶錫殆遍. 此其嘗爲棲息之地也歟. 公作詩甚多. 喜使薇蕨字. 故今又改其谷曰採薇. 而將作一間精舍. 名以谷雲.”(여기는 五歲童자가 있던 터라는 말이 전해 옵니다.”하였다. 대개 梅月堂 金公은 태어난 지 겨우 두어 달 만에 스스로 글을 알았고, 다섯 살이 되어서는 經傳子史를 꿰뚫어 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런 때문에 당시에 五歲라 지목했고 장성한 후에도 그렇게 호칭했는데, 그 사적이 野史 여러 글에 아울러 기재되어 있다. 世祖 때 佛敎에 투신하여 丘壑에 방랑하였으므로 穢貺 지방에는 그 발자취가 거의 다 미쳤으니, 여기도 일찍이 그가 머물러 있던 곳이었던가 보다. 공의 시가 매우 많은데 薇蕨이란 글자를 즐겨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에 그 골짜기 이름을 採薇로 고쳤고, 한 칸의 精舍를 지어서 이름을 谷雲이라 한다.)

21) 籠水亭은 崔致遠 詩「題伽倻山讀書堂」에서 가져온 것이다. 崔致遠, 이상현(역), 『孤雲集』卷1, 「題伽倻山讀書堂」“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미친 듯 바위에 부딪치며 산을 보고 포효하니, 지척 간의 사람의 소리도 알아듣기 어려워라. 세상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저어해서, 일부러 물을 흘러보내 산을 감싸게 하였다네.)

은 다음과 같다.

큰형님께서는 벌써 춘천의 곡운에 은거하시고 작은형님께서는 가릉의 강가에 ‘菟裘’를 마련하셨다. 나의 작은 집은 동음의 백운산 아래에 있는데, 아들 창흡은 또 철원의 태화산에 집을 지었다. 태화산에서 백운까지는 30여 리고 백운에서 곡운까지는 40여리 이니 곡운에서 가릉까지는 또한 100리가 채 안 된다. 네 곳의 서로 떨어진 거리가 비록 멀고 가까운 차이가 있으나, 그 사이를 각각 한 줄기 산으로 경계를 삼으니, 산은 본래 하나의 맥으로 서로 다른 구역이 아니다. 한집안이 기대어 사는 곳이 모두 이처럼 밀접하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족하나마 읍시 한 편을 지어 이러한 사실을 적고, 이내 큰형님과 작은형님께 드리면서 또 자식들에게 보여 준다.

誰遣山靈用意勤	누가 山靈에게 마음 쓸을 부지런하게 하여
安排福地待平分	어찌 복된 땅 나누어 평등하게 나누도록 했는가
嘉陵北峽通青玉	가릉의 북쪽 계곡은 청옥협과 통하고
太華南峯接白雲	태화산 남쪽 봉우리는 백운산에 접했구나
不羨仙侯携斧子	선후가 아들 옥부 이끌고 간 일 부럽지 않고
都輸句曲屬茅君	구곡산이 모군에 속한 전설 모두 가져왔어라
全家道氣眞堪詫	은 집안의 도기는 참으로 자랑할 만하니
十乘朱輪未足群	화려한 열 채 수레모일 일이 없도다 <sup>22)</sup>

처음 시의 앞부분에서 ‘큰 형님은 벌써 춘천의 곡운에 은거하시고 작은형

22) 金壽恒, 유영봉·김건우(역) 『文谷集』 卷5 「伯氏既棲遯壽春之谷雲 而仲氏方營菟裘於嘉陵江上 余之小築 在洞陰白雲山下 翁兒又結廬東州之太華山 自太華至白雲三十里 自白雲至谷雲四十餘里 自谷雲至嘉陵亦不滿百里 四處相去 雖遠近差殊 其間各限以一帶山 山本一脈 非異區也 一家所依歸 皆密邇如此 可謂幸矣 聊賦一律以識之 仍呈伯氏仲氏 且示兒輩」

님께서서는 가릉의 강가에 은거지를 마련하셨다.’ 라는 곳에서 ‘菟裘之地’<sup>23)</sup>의 고사를 인용한다.魯나라의 羽父가 隱公에게 桓公을 죽이기를 간청하자, 은공이 환공이 어리기에 자신이 섭정하였고 이제 환공이 컸기 때문에 ‘菟裘’를 짓고 거기서 은거하겠다는 곳에서 나온 고사이다. 이어지는 시에서도 진나라 장사 許謚의 아들 玉斧(許翺)<sup>24)</sup>를 데리고 화양동에 들어가 선후가 된 고사(不羨仙侯携斧子)와 진나라 모영 삼형제가 구곡산에 들어가 각각 봉우리를 하나씩 차지해서 훗날 신선이 되었다는 고사(都輸句曲屬茅君<sup>25)</sup>)를 인용한다.<sup>26)</sup> 이런 고사를 인용한 것을 통해 김수항이 은거지 경영을 통해 3형제가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잘 드러내는 시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김수증의 은거 의식은 가풍에 의한 은거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680년 가을에 회양부사로 부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아들 昌國과 함께 길을 떠나 금강산 일대를 두루 관람한다.<sup>27)</sup> 이 여행을 계기로 사귄 승려 弘訥을 1683년 화음동으로 데려다가 그 부근에 ‘伴睡庵’<sup>28)</sup>이라는 암자를 짓게 하거 기거하도록 하여 그와 교류하였다.

김수증이 송시열에게 부탁한 「谷雲精舍記」에서도 이곳에 정사지를 마련했다는 정도만 나오지 은거처사로 살겠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런 모습을 살

23) 《漢語大詞典》【菟裘】《左傳·隱公十一年》“羽父請殺桓公，以求大宰。公曰：‘爲其少故也，吾將授之矣。’使營菟裘，吾將老焉。”后因以稱告老退隱的居處。

24) 《漢語大詞典》【玉斧】人名。傳說爲仙人許翺的小字。南朝梁陶弘景。《真誥》卷二十：“<許穆>小男名翺字道翔，小名玉斧。”唐韋應物《萼綠華歌》：“世淫濁兮不可降，胡不來兮玉斧家。”宋蘇軾《次韻致政張朝奉仍招晚飲》：“至今許玉斧，猶事萼綠華。”

25) 《漢語大詞典》【三茅】指傳說中修仙得道的茅君三兄弟。【三茅君】道家傳說中的三神仙，即茅盈及其弟茅固、茅衷。

26) 金壽恒, 유영봉·김건우(역) 『文谷集』卷5, 앞의 시 “青玉峽在谷雲。晉許長史穆與其幼子玉斧入華陽洞，俱得道爲左卿仙侯。秦茅盈三兄弟入句曲山，各占一峯，後皆昇仙，因號爲三茅峯云”

27) 金壽增, 유영봉·김건우(역) 『谷雲集』卷3, 「楓岳日記」

28) 伴睡庵은 6.25때 소실되어 없어진 것을 재건하면서 華岳寺라고 하였다가 1985년 法藏寺로 寺名을 바꾸었다.

펴본다면 이때까지의 김수증의 은거는 여느 다른 사대부이 꿈꾸는 은거의 삶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1689년 기사환국으로 그의 은거 모습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당파 싸움이 점차 격렬해지자 그의 아우 김수항, 김수홍이 유배지에서 사사되고 병사되자 그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곡운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화악산에서 4~5리 서북쪽에 떨어진 곳에 혼자 돌아와 華陰洞에 정사지를 옮겼다. 기사환국 전의 김수증의 문학은 산수를 유람하고 자연을 완상하는 모습이 강한 반면 기사환국 이후의 작품은 일상적인 소소한 삶의 모습을 담담히 풀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그는 화음동 중심으로 주자의 성리학적 관념을 투영시킨 기물들을 짓고 그 기물들의 命名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은거지인 화음동정사지를 조성하게 된다. 후에 화음동정사지는 노론계 문인들의 귀거래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sup>29)</sup> 이것에 대한 논의는 뒤의 IV~V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29) 심경호,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p.329

### Ⅲ. 九曲 경영의 전통과 谷雲九曲

앞 장에서 정치상황과 김수증의 은거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구체적으로 김수증의 구곡 경영의 전통과 곡운구곡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다. 김수증의 곡운구곡 경영을 살피기에 앞서 주자의 무이가와 무이구곡도 연원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무이구곡도는 고려말 성리학의 유입과 함께 조선에 전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구곡도가 성행했을 시기는 16세기 중후반이며, 조선의 실정에 맞는 정사와 구곡 경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주자의 구곡가의 연원을 살펴 조선 구곡가의 수용과 변모양상에 대해 살피고 사인 화가 曹世傑의 <谷雲九曲圖帖>작업과 장동 김문 가문의 곡운구곡가 작업을 살펴볼 계획이다.

#### 1. 朱子の 영향과 조선 九曲歌의 형성과정

##### 1) 朱子の 武夷九曲歌

조선시대 九曲歌의 연원은 朱子の 武夷權歌에서 시작되었다. 주자(1130~1200)의 무이정사의 경영의 목적은 후학 양성을 통한 학문적 교류가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욕구를 잘 드러낸 공간이 무이구곡의 무이정사인 것이다. 주자 또한 그 무이구곡을 배경으로 武夷九曲歌를 읊게 되는데 주자가 무이산의 9곡의 물굽이를 배를 타고 이동하며 느낀 감회를 읊은 시이다. 이런 시작 활동은 후에 주자를 흠모하는 후학들에게 많은 본보기가 되어 화운·차운되어 수많은 작품을 낳게 되는 결과가 된다.

武夷權歌는 중국 남동부에 위치한 福建省 崇安縣의 武夷山을 중심으로 전개된 주자의 학문적 정신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무이산의 협곡에 늘어서 있는 옥녀봉을 비롯해 36개의 봉우리, 99개의 암자가 있다. 지형의 모습은 ‘丹霞地貌’의 형태를 띠고 이 지형의 특징은 붉은 토양의 퇴적층이 기이하고 웅장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배경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이산의 무이계곡을 중심으로 주자는 자신의 학문의 요람을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장소가 바로 5곡에 위치한 무이정사이다. 주자는 1170년 建陽의 서북쪽에 떨어진 蘆峰山아래에 ‘晦庵’이라고 이름을 붙인 초막을 짓고 승안에서 80여리를 왕래하였다. 그 후 1183년(54세)에 무이도가의 5곡에서 묘사한 ‘武夷精舍’를 짓고 거처하였다. 그 뒤 주자는 이듬해 무이구곡을 배경으로 「武夷權歌 10首」를 짓는다. 무이도가 작업은 주자의 학문적 정신을 잘 담아낸 행위이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주자는 은거지가 속해있는 5곡을 포함해 1곡에서부터 9곡까지 배를 타고 차례대로 이동을 하며 구곡의 실경을 통하여 학문을 권장하는 시를 읊고 있다. 序를 제외하고 升眞洞, 玉女峰, 加壑船, 金鷄巖, 鐵笛亭, 蒼屏峰, 石唐寺, 鼓樓巖, 新市의 九曲을 배를 타고 하류에서부터 상류에서 올라가면서 차례대로 읊은 시이다.

주자의 무이도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武夷九曲圖의 모습을 참고로 하여 시를 짐작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나 무이구곡도에 대한 중국 기록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중국 회화사에서도 성립과 전개에 관한 내용은 거의 서술되고 있지 않다.<sup>30)</sup> 때문에 화첩에 대한 설명은 미술사적 이야기와 밀접하다고 판단됨으로써 본고에서 논하지 않고, 시를 중점으로 분석하여 살필

---

30) 윤진영은 주희가 王維처럼 직접 그림을 그리는 문인화가가 아니고 무이구곡도의 제작과 감상의 범위가 주희의 학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진영, 「조선시대 구곡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9-10.

계획이다.

여기서 무이도가 10首의 원문은 浦渚 趙翼(1579~1655)<sup>31)</sup>의 「武夷權歌十首解」<sup>32)</sup>의 내용을 참고하여 살피고자 한다. 序를 포함한 10首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먼저 序를 살펴보겠다.

武夷山上有仙靈	무이산 위에는 신선이 살고 있고
山下寒流曲曲清	산 아래엔 찬 냇물이 굽이굽이 맑아라
欲識箇中奇絕處	그 속의 멋진 경치 아시고 싶거들랑
棹歌閑聽兩三聲	뱃노래 두세 가락 한가히 들어 보소

위의 시에서는 武夷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산 위에서 산 아래로의 시각적 이동에 따라 산에서 물로 이어지는 상하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 높은 곳에는 仙靈이 자리 잡고 있고 밑으로 내려다보면 차가운 물결이 굽이굽이 맑게 흐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절경을 찾으려는데 한가로이 들려오는 노 젓는 두세 가락의 소리가 들려온다. 조익은 ‘兩三聲’을 다음에 이어지는 9首의 시를 가리킨다고 한다. 아래에 이어지는 시를 통해 아름다운 경치를 찬찬히 노래하겠다는 뜻을 보인다는 것이다. 序에 해당하는 내용답게 무이산과 무이구곡에서 펼쳐질 주자의 이상적인 공간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는 부분이다.

一曲溪邊上釣船      一曲 냇가에서 고깃배에 올라타니

31) 浦渚 趙翼(1579~1655)은 본관은 豐壤. 자는 飛卿, 호는 浦渚다. 조선시대 문인으로써 인조·효종 무렵에 서인의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시문집인 『浦渚集』 있다. 趙翼,

32) 이상현(역), 『浦渚集』 卷22, 「武夷權歌十首解」 “公自題云. 淳熙甲辰仲春. 精舍閑居. 戲作武夷權歌十首. 呈諸友遊. 相與一笑武夷山上有仙靈. 山下寒流曲曲清. 欲識箇中奇絕處. 棹歌閑聽兩三聲.”(주공(朱公) 자신이 제목을 붙이기를 “순희 갑진년 2월에 정사에서 한가히 거하다가 무이도가 10수를 장난으로 지어 함께 노니는 벗들에게 보여 주며 서로들 한번 웃었다. [淳熙甲辰仲春 精舍閑居 戲作武夷權歌十首 呈諸友遊 相與一笑]”고 하였다.) 조선 포저 조익이 해설한 무이도가 10수의 원문을 따른다.

幔亭峯影蘸晴川	만정의 봉우리 그림자가 맑은 시내에 잠겼어라
虹橋一斷無消息	무지개다리 끊긴 뒤로는 소식도 알 길 없이
萬壑千巖鎖翠煙	일만 골짜기 일천 바위가 푸른 연무에 갇혔도다

1곡의 升眞洞을 읊은 것이다. 계곡으로 들어가려면 승진동을 지나가야 한다. 이런 모습을 통해 주자는 ‘初學’에 비유한 것이다.<sup>33)</sup> 냇시배에 올라 구곡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晴川의 맑은 물에 幔亭峯의 그림자가 맑은 시내에 잠겨있고 표현하여 초학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幔亭은 장막을 둘러싼 정자를 뜻하고 ‘虹橋’는 무이산의 신선 은거지와 산 아래 세상사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무이산의 산신인 武夷君이 매년 음력 8월 15일에 만정봉과 산 아래를 통하게 하여 연회를 베풀었다는 전설이 있다. 무이산의 신선의 은거지와 산 아래 세상사를 연결하는 ‘홍교’가 끊어짐으로써 아무도 찾아 올 수 없게 된 만정봉은 적막에 휩싸인다. 이런 모습을 푸른 안개에 갇힌 만학천암으로 표현하여 신선이 기거하는 무이산의 모습이 더욱더 멀어지게만 느껴진다.

二曲亭亭玉女峯	二曲 우뚝 서 있는 옥녀봉이여
插花臨水爲誰容	꽃 꽂고 물 굽어보며 누굴 위해 화장했노
道人不復陽臺夢	도인에게 양대의 꿈이 다시 있을 리야
興入前山翠幾重	흥이 돋는 것은 앞산의 몇 겹 운무일 뿐

다음은 2곡의 玉女峰을 읊은 것이다. 우뚝하게 솟은 옥녀봉 사이사이에는 꽃이 피어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꽃을 꺾고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조익은 이를 통해 도를 배우고 깨우치려면 물욕을 근절

33) 趙翼, 『浦渚集』, 앞의 시, “一曲, 卽其入處也. 將遊此溪者必自此而入, 故取以譬初學也.”

해야하고 여색을 멀리해야한다고 말한다. 34) 주자 또한 옥녀봉을 비유해 학문을 하는 자들에게 경계를 삼고자 한 듯하다. 뒤에 이어지는 3구의 宋玉의 高唐賦에 나오는 ‘陽臺’를 비유해 시상의 분위기는 더욱 극대화 된다. 양대는 巫山之夢과 같은 뜻으로, 즉 남녀의 雲雨之情을 표현하는 말이다. 楚나라 襄王이 高唐에 놀다가 낮잠에 들고 만다. 이때 꿈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 그 여인과 정을 나눈다. 다음날 여인이 떠나면서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니 아침마다 구름이 되고 저녁마다 비를 내리며 양대 아래에 있겠다고 하며 떠난다.35) 곡운에는 무산의 여인은 없지만 곳곳에 꽃이 폼핀 채 푸르게 우뚝히 서있는 옥녀봉만 있을 뿐이다.

三曲君看架壑船	三曲 산에 걸쳐 얹혀 있는 배를 보소
不知停棹幾何年	모를레라 노 멈춘 지 몇몇 해인가
桑田海水今如許	바다가 지금 뽕 밭으로 변해 있나니
泡沫風燈敢自憐	포말과 풍등 같은 인생 감히 스스로 아끼리오

3곡에 이르자 架壑船이 나온다. 가학선은 옛날 무이산 사람들에게는 나무의 밑 부분을 깎아 관 안에 망자와 유품을 넣어두고 무이산 절벽에 걸어둔 관이라고 한다. 반면, 조익의 기록에는 가학선은 암벽 틈에 있는 배를 말하는데 예전에 물이 크게 불어나 산꼭대기까지 올라왔다가 암벽 틈에 그대로 오랜 세월 낡은 채로 걸쳐 있는 배를 말한다는 말이 있다.36) 하지만 2곡에서 ‘노 멈춘 지 몇몇 해인가’ 라는 말을 통해 가학선은 ‘배’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떠다녀야 할 배가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할 만큼 오랜 세월이 흐

34) 趙翼, 『浦渚集』, 앞의 시, “人苟以學道爲事. 則當屏絕物欲之害於道者. 而女色之害爲尤甚. 故學道者尤深戒之也.”

35) 『文選』, 「高唐賦」

36) 趙翼, 『浦渚集』, 앞의 시, “架壑船. 想古時大水. 舟泛至高處. 水落仍委於地. 歲久朽敗也. 適此曲有此.”

를 동안 떠 있어보지도 못하고 노 젓기를 멈추고 산에 걸려 있는 가련한 모습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포말과 풍등을 통해 인간의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물거품과 바람 속 등불같이 사그라드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한순간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는 인간들을 깨우쳐 진정한 도를 쫓는 공부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四曲東西兩石巖	四曲 동쪽 서쪽 두 개의 돌바위 산
巖花垂露碧 <sub>石</sub> 蓀	산꽃은 이슬 드리우고 바위는 검푸른 모포로세
金鷄叫罷無人見	새벽닭도 울었건만 사람은 보이지 않고
月滿空山水滿潭	빈산엔 달빛 가득 못에는 물이 가득

4곡의 金鷄巖을 읊은 시이다. 양쪽에 나란히 두 바위가 있다. 그 바위 위엔 꽃이 피어 있고 밤이슬 푸르게 드리워져 있다. 아름다운 경치에 새벽닭 소리만 고요히 울리고 이런 경치를 나 홀로 지켜보고 있다. 이는 고요한 마음의 경지에 올라온 학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五曲山高雲氣深	五曲 산이 높아 구름 기운 깊은 속에
長時煙雨暗平林	어느 때나 안개비가 평림에 자욱하네
林間有客無人識	숲 사이의 나그네를 알아보는 사람 없이
欸乃聲中萬古心	뱃노래 가락 속에 만고의 마음이 들었어라

鐵笛亭에서 바라보는 5곡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5곡에는 주자의 무이정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곳서 주자는 그의 후학들에게 강학을 열었기 때문에 주자의 삶과 학문이 연관된 장소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내린 안개비에 주변이 어두워 숲 속에 있는 나그네 알아보는 이 없다. 어두운 주변에는 오직

벃사공들이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래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하지만 그 노래 소리에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서려있다. 4곡에서부터 아는 이 없고 5곡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는 표현은 이미 터득하여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sup>37)</sup>

六曲蒼屏繞碧灣	六曲 푸른 병풍이 푸른 물굽이 에워싸고
茅茨終日掩柴關	뗏집에는 종일토록 사립문이 닫혔어라
客來倚棹巖花落	객이 와서 노에 기대니 산꽃만 떨어질 뿐
猿鳥不驚春意閑	새들도 놀라지 않는 속에 봄뜻이 한가해라

다음은 6曲 蒼屏峰을 읊은 시이다. 蒼屏峰 주변에는 질푸른 물굽이가 휘둘러있고, 그 근처에 있는 뗏집 사립문이 닫혀있다. 점차 푸른 계곡으로 들어올수록 새들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하여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점차 학문의 경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七曲移船上碧灘	七曲 배를 옮겨 벽탄으로 올라가서
隱屏仙掌更回看	隱屏과 仙掌 봉우리 다시 돌아보고 있네.
可憐昨夜峯頭雨	어여빠라 지난밤 산꼭대기에 뿌린 비여
添得飛泉幾度寒	불어난 저 비천은 몇 번의 추위를 넘겼을꼬

7曲의 石唐寺의 주변을 묘사하였다. 배를 저어 거슬러 올라가니 아까 지나 왔던 곳을 되돌아보니 은병봉과 선장봉이 다시 한눈에 보인다. 위로 거슬러 올라와보니 모든 봉우리에서 비가 내리는 덕에 물이 합쳐져 떨어지는 물줄기가 차갑다. 차갑다는 이미지에서 맑고 시원한 기운이 느껴진다. 조익

37) 趙翼, 『浦渚集』, 앞의 시, “上四曲言無人見. 此云無人識. 皆是言己所獨得而人莫知之也”

은 도달한 지위에서 다만 더욱 노력하여 더욱 높은 경지를 취해야한다고 말한다. 평화로운 지위에 도달하고 나서도 반드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8)</sup>

八曲風煙勢欲開	八曲 바람과 연무 그 형세 곧 깰 듯
鼓樓巖下水縈回	고루암 아래로는 맴돌아 나가는 물이로세
莫言此處無佳景	이곳에 멋진 경치 없다고 하지 마오
自是遊人不上來	단지 노니는 이들이 올라오지 않을 따름

바람에 짙은 안개가 걷힐 것 같고, 그 사이에서 8曲 鼓樓巖이 보인다. 고루암 아래의 물은 물결이 굽이쳐 거세게 돌아나가고 있다. 여기에서 물결의 속도감이 느껴진다. 처음 1曲에서 느껴지는 스피드감이 점차 시의 중반 부분에 다다라서는 고요한 느낌을 주다 曲이 끝나가는 부분에선 다시 세차게 물줄기가 휘몰아친다. 학문에 비유하자면 학문의 경지에 다다른 자는 아직 없어 홀로 그 주변을 즐기고 있다.

九曲將窮眼豁然	九曲 막다른 골에서 눈이 활짝 트이니
桑麻雨露見平川	뽕과 삼이 우로에 젖어 평평한 들판에 보이도다
漁郎更覓桃源路	어랑은 도원의 길을 다시금 찾았다만
除是人間別有天	오직 인간 세상 속에 별천지가 있는 것을

마지막 9曲 新村市の 모습을 읊었다. 마지막 9曲 이르자 눈앞이 트인다. 뽕나무와 삼밭이 보이고 점차 무릉도원에서 벗어나 평탄한 인간세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앞의 曲들과 달리 바위나 봉우리도 없이 평지의 뽕나무와

38) 趙翼, 『浦渚集』, 앞의 시, “自此至九曲. 其意亦相似. 皆是言已到安和地位. 又必着力求進. 以至於極也”

삼의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자는 무릉도원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다른 곳을 보았어도 오직 인간의 별천지만 보임을 깨닫게 된다.

序부터 9曲을 통해 물의 속도감을 통해 공간의 이동이 느껴지도록 서술하였고, 무이구곡의 실경과 느껴지는 심정을 무이도가에서 잘 표현하였다. 9曲의 이동을 통해 학문의 과정을 표현해 나갔다. 처음 학문을 시작한 1曲부터 도를 터득하게 된 9曲까지의 모습을 통해 주자가 후학들에게 무이도가 시를 통해 학문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필 수 있겠다. 이를 통해 후에 많은 이들이 무이구곡가와 무이구곡도를 소재로 많은 패러디를 남겼고, 그 결과 구곡시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기게 된다. 그 영향은 주자의 성리학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전래된다..

## 2) 16~17세기의 九曲歌의 변모양상

무이도가의 전래는 고려 말에 유입되었다고 전해졌다고 한다. 그 근거로 개성에서 출토된 접시 둘레에 무이도가 1曲의 시와 도상이 그려져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sup>39)</sup> 그 후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시기는 15세기에 주자의 성리학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로 볼 수 있겠다. 당시 주자를 흠모하는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정신적 산물인 무이구곡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四佳亭 徐居正(1420~1488)의 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精舍

已矣世無知      그만이로다 세상에 알아줄 이 없어  
來作山中客      와서 산중의 나그네가 되었더니

39) 강신애, 「조선시대 무이구곡도의 연원과 특징」,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2007. p. 8.

經史足餘暇      경사 읽는 이외에 여가도 넉넉해  
 優游一泉石      한 산수 사이에 우유자적하노라 40)

주자의 「武夷精舍雜詠 12首」의 운을 차운한 「朱文公武夷精舍圖用文公韻」의 <精舍>이다. 앞의 시를 통해 이미 조선 초기 유학자들에게 주자의 무이구곡이 전파되어 자리 잡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거정을 포함한 권근, 김종직 등은 무이구곡 및 무이산을 주제로 시를 짓는다. 하지만 이때까지의 시들은 구곡시의 형태를 갖췄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본격적인 구곡도와 구곡 경영의 형태는 16세기 중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16세기에는 조선 초기에 비해 성리학이 심화된 시기이다. 자연스럽게 조선중기 성리학자들에게 주자는 흠모의 대상이 되었고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세운 그의 구곡 경영은 조선 사대부들이 귀감이 되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구곡 경영과 구곡시 창작을 시작하였으며 주자의 무이정사지를 그들의 학문적 이상향지로 설정하여 자신들의 구곡 경영지를 구상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곡 경영과 구곡시는 逍遙堂 朴河澗(1479~1560)<sup>41)</sup>이

40) 徐居正, 임정기(역), 『四佳集』 卷4, 「朱文公武夷精舍圖用文公韻」.

-止宿寮

有客款山扉, 雲深一茅宇. 青燈話今古, 新炊間黃黍.

-觀善齋

從容函丈間, 摳衣爭避席. 聖賢可同歸, 思齊常勉力.

-石門塢

世路一何嶮, 山門一何深. 朝昏閉石門, 爲扁名利心.

-寒栖館

斗室生虛白, 道味知有力. 澹然何所求, 掛冠倚空壁

-鐵笛亭

昔人橫鐵笛, 崖斷山雲開. 千秋有遺響, 感慨從中來.

-釣磯

一竿坐魚磯, 無言瞰泓碧. 隔岸名利人, 看看不相識.

-隱求齋

高齋夜氣明, 唯聞靈籟響. 誰知隱几心, 君子道不長.

-茶竈

采采金露牙, 竈在水中央. 聊以活火煎, 便覺聞天香.

-漁艇

一葦縱所之, 泛泛隨風輕. 乾坤俯仰間, 一曲滄浪聲.

1536년에 경상북도 청도의 운문산을 배경으로 한 「雲門九曲歌」를 창작한 것에서 살필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퇴계 이황의 도산구곡<sup>42)</sup>과 율곡 이이의 고산구곡<sup>43)</sup>이 대표적이다.<sup>44)</sup>

16세기의 이이, 퇴계 등의 구곡가 작업과 구곡 경영 활동은 후학 양성과 주자의 존경심으로 인한 주희의 삶 모습을 고스란히 작품과 구곡 경영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순수한 자신들의 의식을 반영해내는 작업으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구에 의해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17세기 구곡가 작업 양상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17세기 구곡가와 구곡 경영의 모습은 16세기 모습과는 다르다. 바로 사상적 이념의 대립과 봉당 싸움의 영향으로 현실 도피의 방안으로 구곡가와 구곡 경영으로 해소시켜 나간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앞서 16세기의 후학 양성과 주자 존숭으로 인해 생긴 구곡 경영지와 달리 당쟁의 화로부터 자신들의 학맥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조정에서는 병자호란과 두 번의 예송논쟁으로 인해 정치적 대립이

41) 逍遙堂 朴河淡(1479~1560)은 자는 應千, 호는 逍遙堂이다. 1516(중종 11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현량으로 여러 번 천거되었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저서로는 《逍遙堂逸稿》가 있다.

42) 퇴계는 주자의 무이산과 무이구곡 경영을 동경하여 자신의 정사지 경영에도 많은 영감을 받게 된다. 이런 모습에서 퇴계가 무이구곡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일 것이다. 때문에 자신의 벗인 이증구에게 작품을 얻어 무이구곡을 즐겼다고 한다.

43) 1571년에 해주에서 파주 율곡으로 돌아와 석담구곡을 둘러보다 曲에 이름을 붙이고 서울과 파주를 왕래하다 7년 뒤인 1578년 은병정사를 세우고 「高山九曲歌」를 지었다. 주자의 무이구곡과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석담에 은거지를 정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주자는 무이구곡에 무이정사를 설치하여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그런모습을 무이구곡가 5곡에서 읊어내었는데, 퇴계도 5곡에 은병정사의 풍경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五曲은 어찌 미고 隱屏이 보기 도다. 水邊精舍는 瀟灑도 2이 업다. 이 中에 講學도 好려니와 詠月吟風호리라.” (오곡은 어디인가? 隱屏이 보기 좋구나. 물가에 세워진 정사는 맑고 깨끗하기 한이 없다. 이 가운데서 講學 하려니와 자연을 시로 짓고 읊으면서 풍류를 즐기리라.) 원문은, 조지형, 「17~18세기 구곡가 계열 시가문학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 23.에 실린 원문을 따른다.

44)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의 구곡가의 형태는 사뭇 다르다. 바로 구곡가의 형태적인 모습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조선시대 구곡가는 여러 형태로 분류된다. 한문으로 쓴 ‘한문구곡시’와 시조형태의 ‘국문구곡가’로 나뉜다. 퇴계 이황의 「도산구곡시」는 ‘한문구곡시’이며, 율곡 이이의 「고산구곡가」는 ‘국문구곡가’ 즉 시조의 형태를 띤다. 나아가 율곡과 같은 ‘국문구곡가’에서 ‘한역구곡시’가 나뉘는데, 이런 모습은 후에 율곡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가지고 송시열이 한역한 「고산구곡가」가 대표적이다.

끊이지 않았다. 어지러운 환란 속에서 당파는 남인과 서인에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16세기 정통 주자학을 숭상하는 노론과 이이의 학맥을 부정하는 소론으로 나뉘게 된다. 이런 현상은 구곡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노론의 주장인 송시열이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한역<sup>45)</sup>하고 <고산구곡도첩> 작업을 통해 주자의 무이도가에 10수에 차운한 「고산구곡시」작업에서 드러나게 된다.<sup>46)</sup>

송시열은 이이의 학맥을 이어받은 정통 주자학자이다. 이들은 정통 주자학의 학맥을 굳히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작업이 위에서 말한 「고산구곡시」작업이다. 1687년(숙종 13년) 송시열은 文谷 金壽恒, 霽月堂 宋奎濂(1630~1709), 丈巖 鄭澹(1648~1736), 睡谷 李畬(1645~1718), 谷雲 金壽增, 三淵 金昌翁, 遂庵 權尙夏(1641~1721), 芝村 李喜朝(1655~1724), 鳳谷 宋疇錫(1650~1692)에게 <고산구곡도첩> 위에 시를 각자 한 수씩 차운하라고 명한다. <sup>47)</sup>

45) 『宋子大全』, 「高山九曲歌翻文」

高山九曲潭, 世人曾未知. 誅茅來卜居, 朋友皆會之. 武夷仍想像, 所願學朱子.  
一曲何處是, 冠巖日色照. 平蕪煙斂後, 遠山眞如畫. 松閒置綠樽, 延佇友人來.  
二曲何處是, 花巖春景晚. 碧波泛山花, 野外流出去. 勝地人不知, 使人知如何.  
三曲何處是, 翠屏葉已敷. 綠樹有山鳥, 下上其音時. 盤松受清風, 頓無夏炎熱.  
四曲何處是, 松崖日西沈. 潭心巖影倒, 色色皆蕪之. 林泉深更好, 幽興自難勝.  
五曲何處是, 隱屏最好看. 水邊精舍在, 灑灑意無極. 箇中常講學, 詠月且吟風.  
六曲何處是, 釣峽水邊闊. 不知人與魚, 其樂孰爲多. 黃昏荷竹竿, 聊且帶月歸.  
七曲何處是, 楓巖秋色鮮. 清霜薄言打, 絕壁眞錦繡. 寒巖獨坐時, 聊亦且忘家.  
八曲何處是, 琴灘月正明. 玉軫與金徽, 聊奏數三曲. 古調無知者, 何妨獨自樂.  
九曲何處是, 文山歲暮時. 奇巖與怪石, 雪裏埋其形. 遊人自不來, 謾謂無佳景.

46) 그러나 제자인 윤증은 송시열의 이러한 작업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윤증은 스승 송시열과 달리 양명학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남인들과도 자주 어울려 지냈다. 결국 남인과 결탁하여 소론이 되었다. 이들은 이이에게서 이어지는 정통 주자학을 부정하였다.

47) 『栗谷全書』卷34, 「高山九曲詩尤庵既次武夷權歌首韻」

五百天鍾地炳靈, 栗翁委粟粹而清. 高山九曲幽深處, 汨灑寒流點瑟聲. 尤庵宋時烈.  
一曲松閒漾玉船, 冠巖初日映前川. 携筇坐待佳朋至, 遠岫平蕪捲夕煙. 文谷金壽恒.  
二曲僊巖花映峯, 碧波流水漾春容. 落紅解使漁郎識, 休說桃源隔萬重. 霽月宋奎濂.  
三曲曾聞詠鯨船, 上游移權問何年. 山禽解說滄桑事, 下上其音正可憐. 丈巖鄭澹.  
四曲松崖萬丈巖, 日斜林影翠毵毵. 怡情正在幽深處, 雲白山青集一潭. 睡谷李畬.  
五曲雲煙深復深, 武夷精舍此山林. 翛然杖屨清溪上, 誰會吟風詠月心. 谷雲金壽增.  
六曲春深釣綠灣, 歸時溪月照松關. 濠梁上下天機活, 魚我相忘果孰閑. 三淵金昌翁.

「고산구곡시」의 작업에서도 보이듯이 17세기 사대부들이 구곡시와 구곡도를 작화하는 과정은 당쟁싸움으로 복잡한 정치상황에 큰 영향이 있다. 정통 주자학과 정통 주자학을 부정하는 무리들 간의 싸움 속에서 그들의 정신적인 안정과 학맥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구곡시와 구곡 경영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곡운 김수증의 곡운구곡 경영과 곡운구곡가 작업은 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 2. 은둔 실현과 九曲경영-谷雲九曲 조성과 谷雲九曲歌 10首

17세기 성리학자들의 구곡 경영과 달리 김수증의 구곡 경영 방식과 목적은 다른 방향을 띄고 있다. 기존의 이황, 이이, 송시열 등은 구곡 경영을 통해 그들의 학맥을 유지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지만 김수증은 산수를 즐기는 성향을 바탕으로 개인 수양을 목적으로 둔 구곡 경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김수증이 은거하게 되는 ‘谷雲’은 강원도 화천군 사탄면에 소재하고 있다. 본래 춘천군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1954년 화천군에 편입되었다. 「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본래 ‘史呑’을 ‘實雲’으로 불렀었는데, 김수증이 1670년 평강현감으로 있던 시절 이곳에 은거하려고 터를 잡으면서 ‘谷雲’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 후 1675년 성천부사 시절에 이곳에서 농수정사를 완성하고 물가에 籠水亭을 짓고 서문을 짓는다.<sup>48)</sup>

七曲楓巖倒碧灘, 錦屏秋色鏡中看. 悠然獨坐忘歸路, 一任霜風拂面寒. 遂庵權尙夏.  
八曲溪山何處開, 琴灘終日好沿洄. 牙絃欲奏無人和, 獨對青天露月來. 芝村李喜朝.  
九曲文巖雪皓然, 奇形掩盡舊山川. 遊人謾說無佳景, 未肯窮尋此洞天. 校理宋疇錫.

48) 金壽增, 『谷雲集』卷6, 「籠水亭小序」 “狂奔壘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鎮籠山. 此乃崔孤雲詩. 刻在伽倻山紅流洞者也. 余自少愛誦之. 或遇水石噴薄處. 未嘗不懷高風. 蓋亦庭草憶濂溪之意也. 余於庚戌春. 得占狃墟之谷雲. 既置精舍. 仍就澗曲. 爲籠水之亭. 噫. 孤雲之作是詩. 意果何在. 余之有取於斯義者. 其亦不幾於絕滅是非之天者歟. 嗚呼. 混沌既死. 萬偽日滋. 人之稟賦於初者. 雖銷鑠

농수정에서 1682년 김수증은 士人화가 曹世傑(1635~1705)<sup>49)</sup>에게 <곡운구곡도첩>을 그리게 하였고 그 위에 그의 일족들과 함께 시작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조카 김창협이 「谷雲九曲圖跋」에서 살필 수 있다.

화가는 바로 西都의 曹世傑인데, 선생이 친히 데리고 와서 직접 분부하여 마치 거울에 비친 상을 취하듯이 굽이마다 현장에 임하여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 겹쌓인 언덕과 골짜기, 진기한 바위와 물살이 빠른 여울, 집의 위치, 채소밭의 경작 상황, 닭이 울고 개가 짖는 모습, 나귀가 걸어가고 소가 잠자는 모습 등 갖가지 풍경이 빠짐없이 다 갖추어졌다. 그리하여 이 그림을 한번 펼쳐 보면 마치 망천(綱川) 당나라 왕유(王維)의 별장)의 농장을 지나가고 무릉도원으로 가는 나무를 찾아가는 것처럼 황홀하여 저절로 저자와 조정의 번잡한 속세를 멀리 벗어나게 된다. 선생은 아마도 장차 이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즐거움을 독점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sup>50)</sup>

김창협 기록에서도 보이듯이 김수증이 화가의 손을 빌려 곡운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남기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울의 비친 상을 취하듯 그린다.’라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수증이 조세걸을 현장

---

不得. 世之炎炎詹詹. 鮮得其眞. 則不幸而生乎叔季者. 不欲入於是非叢中. 故孤雲又嘗有云人間之要路通津. 眼無開處. 物外之青山綠水. 夢有歸時. 及乎高飛遠引而猶恐其有聞. 是豈果於忘世而然哉. 高山仰止. 其人遠矣. 世外雲山. 在處皆是. 百道清泉. 籠山振壑. 煩囂不到. 是非兩忘. 優哉游哉. 吾將終老乎其間.”

49) 曹世傑(1635~1705)은 평양출신의 화가이니 본관은 昌寧, 호는 溟州이다. 부친 趙興宗은 詩書에 능하여 조세걸의 그림과 함께 詩書畫三絶을 이루어 평양에서는 ‘曹氏三絶’로 불릴 만큼 유명하였다. 집이 부유하여 많은 중국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고 이는 조세걸의 화풍 형성에 큰 밑받침이 되었다. 후에 조세걸은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김수증의 곡운구곡도첩을 그리게 된다. 이 그림은 실제의 구곡의 모습을 그린 실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작품이 된다.

50) 金昌協, 송기채(역), 『農巖集』卷25, 「谷雲九曲圖跋」“乃西都曹世傑. 先生實手携而面命. 逐曲臨寫. 如對鏡取影. 故其重岡復峽. 奇石激湍. 茅茨之位置. 園圃之耕鑿. 雞鳴犬吠. 驢行牛眠. 種種備具. 纖悉無遺. 使人一展卷間. 恍然若歷綱川之莊. 問桃源之津. 而渺然自遠於市朝埃壘之外. 先生殆將以此. 同其好於人而不私其樂歟.”

에 데리고 가서 각각의 九曲마다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리게 했다. 이런 점을 미루어본다면 기존의 17세기 이전의 이전에 작가의 내부의 눈으로부터 풍경을 창조해내는 전통적 관념적 산수관에 젖어있던 문인들의 산수관에 반해 조세걸의 <곡운구곡도첩>은 사실적 산수관이 엿보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51)</sup>

또한 그리게 한 까닭도 창협의 기록에서도 보이고 있다. 창협에 발문에서도 보이듯이 김수증이 조세걸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까닭은 때때로 산을 떠나기 때문에 九曲을 늘 자신의 눈 안에 담아 둘 수 없으니 산을 떠날 때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한다.<sup>52)</sup>

즉, 이때까지 만해도 김수증이 관직을 아직 떠나지 않을 때이고, 곡운정사와 서울을 왕래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이 간혹 곡운정사지를 비울 때 그것을 곁에 두고 완상하려는 것이다. 아직 완전한 은거를 하지 않은 시기이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김수증은 화첩 작업에서 멈추지 않고 당시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주자의 무이구곡시에 차운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작업은 그림이 완성된 지 10년 뒤인 1692년에 시작된다. 김수증은 자신의 아들 金昌國(1644~1717), 金昌直(1653~1702), 그리고 조카인 金昌集(1648~1722), 金昌翕(1653~1722), 金昌業(1658~1721), 金昌緝(1662~1713), 洪有人(1656~1694)들에게 각 曲마다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시를 짓고 쓰게 하여 화첩을 꾸미게 하였다. 화첩에 실린 김수증 「谷雲九曲 次晦翁武夷權歌韻」<sup>53)</sup>와 실제 곡운구곡

51) 김인숙은 17세기 조선에서 전문화가도 아닌 성리학자가 그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대의 詩書畫 일치 사상에 의한 일반적 현상이지만 전통적 산수관인 관념적 산수관을 배제하고 사실적 산수관으로 실경을 제작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풍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김수증의 사실적 산수관은 노론계의 집안인 그의 가풍의 영향도 컸다. 그의 백부인 김상용은 <청풍풍계도>를, 그의 동생인 김수항은 함경도 함에 재직할 당시 주변 명소인 칠보산을 기행하면서 화가 韓時覺으로 하여금 <금강봉도>를 그리게 한다. 김인숙, 앞의 논문. p.279~285.

52) 金昌協, 『農巖集』卷34, 「谷雲九曲圖跋」“然余之爲此圖也. 亦以吾兩脚不免時時出山. 此九曲者. 不能常在目中. 故用爲爾時觀耳”

53) 김수증의 곡운구곡가 10首는 『谷雲集』에 실려 있지 않은 관계로 정약용이 춘천 지역을 답사한 「산

의 실경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보겠다.

시의 序와 1곡의 傍花溪는 김수증이 수창하였다. 序는 다음과 같다.

絕境端宜養性靈	세속과 벗어나 마음을 수양하기에 알맞으니
暮年心跡喜雙清	늙으막에 마음은 더욱 맑음에 기쁠뿐이다
白雲東畔華山北	백운산 동쪽 화악산 북쪽
曲曲溪流滿耳聲	굽이굽이 시내소리 귀에 가득 들려오네

序는 金壽增이 선창하였다. 1구에서 김수증은 자신의 은거지인 ‘곡운’은 세속과 벗어나 마음을 수양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보고 있다. 이 장소를 통해 김수증은 풍광을 즐기며 마음 수양을 즐기고 있다. 2구에서는 이런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곳에서 마음을 닦는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3구와 4구는 곡운구곡의 지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백운산과 화악산이 위치하였고 9곡의 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있다.

김수증의 일족들은 하류에서부터 상류를 오르면서 九曲의 풍광에서 얻는 감회를 유감 없이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谷雲記」에서 묘사하는 구곡의 모습과 실제 구곡의 모습은 닮은 점이 많았다.

一曲難容入洞船	一曲 배를 타고 들어가기는 여의치 않은데
桃花開落隔雲川	구름 시내 건너에 복사꽃 피고진다
林深路絕來人少	숲 깊고 길 끊겨 찾아오는 사람 적으니
何處仙家有吠煙	어느 仙家에서 개 짖고 연기가 이는 것인가

---

행일기」에 곡운구곡도첩의 시를 필사한 기록이 있어 그 기록에 따른다. 丁若鏞, 『與猶堂全書』卷22, 「山行日記」



### <사진1 - 방화계>

위의 시는 김수증이 1곡 ‘방화계’를 읊은 것이다.<sup>54)</sup> 하류인 방화계를 시작으로 곡운구곡이 시작된다. 1구에서 묘사하듯이 배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지형이다. 2구에서는 깊고 험난하지만 아름다운 복사꽃이 피는 무릉도원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복사꽃을 통해 선가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멀리 바라보이는 구름시내에서부터 3구의 깊은 숲길의 모습에서는 계곡에서 산길까지 자연스럽게 공간이 이동하여 묘사되고 있다.

실경에서도 보이듯이 계곡 사이사이 바위와 돌들이 자리 잡고 있어 배가 지나가기에는 쉽지 않은 지형이다. 계곡에는 소나무가 계곡가에 자리 잡고 물 가장자리에는 널찍한 바위들이 자리 잡고 있다.

二曲峻嶒玉作峰	二曲 높고 우뚝한 옥이 봉우리를 만들었고
白雲黃葉映秋容	백운산 누른 잎 가을 경치를 이루네
行行石棧仙居近	石棧을 걸으니 신선 거하는 곳과 가까워지니
已覺塵喧隔萬重	이제야 깨닫는 구나 세상의 소란이 만 겹이네

54) 丁若鏞, 『與猶堂全書』卷22, 「山行日記」.“傍花溪, 自鉏鋸村西, 轉而過梧里谷, 渡一溪, 此是谷雲洞口也. 躡蒜峴, 山回谷轉, 水石清壯, 曰傍花溪”(鉏鋸村으로부터 서쪽으로 돌아梧里谷을 지나 시내 하나를 건너는데, 이것이 곧 谷雲洞 입구이다. 蒜峴을 넘으면 산수가 두루 돌고 수석이 맑고 장엄하니 이것을 傍花溪라 한다.)



### <사진2 -청옥협>

2곡의 청옥협은 金昌國이 읊었다.<sup>55)</sup> 「谷雲記」에서 나와 있듯이, 石棧이 물 사이에 있고 점차로 전망이 트여 가는 것과 같다고 서술한다.<sup>56)</sup> 1구에서 험준하게 솟은 봉우리는 옥으로 만든 것처럼 푸른빛을 띠고 있다. 또한 2구의 백운산의 노란 잎들이 가을이 다가왔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구의 푸른빛과 2구의 노란빛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시각적인 표현으로 독자로 하여금 읽는 재미를 주고 있다. 3구의 잔도는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잔도를 걸어 들어가 시끄러운 세상을 단절하고 점차 먼지 낀 속세를 벗어나는 것에서 공간이동의 모습도 잘 표현하고 있다. 실제 풍광에서도 보이듯이 청옥협의 트인 계곡 사이사이 암석과 바위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1구에서 나온 옥봉의 모습은 찾기 힘든데 아마도 지금은 사라진 듯하다.

55) 丁若鏞, 『與猶堂全書』卷22, 「山行日記」.“青玉峽, 自花溪過五里, 轉一山, 石棧斜側, 左臨危溪, 右擁層峰者是”(青玉峽은 花溪로부터 5리를 지나 하나의 산을 돌면 石棧이 옆으로 비껴 있고, 좌측으로는 위험한 시내에 입하고 우측으로는 층층이 높이 솟은 봉우리를 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청옥협이다.)

56) 金壽增, 『谷雲集』卷4, 「谷雲記」“石棧際水, 稍似開豁.”



### <사진3 -신녀협>

三曲仙蹤杳夜船	三曲 신선의 자취가 밤배에 아득하니
空臺松月自千年	빈 누대와 소나무에 걸린 달 천년이로다
超然會得清寒趣	청한자의 정취를 얻은 것을 초연히 깨달았네
素石飛湍絕可憐	흰 돌 사이 세찬 여울은 가히 아름답네

3곡은 신녀협은 조카 金昌集이 읊었다.<sup>57)</sup> 「곡운기」에 따르면 김수증은 신녀협의 본래 이름인 ‘女妓亭’을 신녀협이라 이름을 바꾸고 또 貞女峽이라고 이름을 하였다. 그리고 소나무 우거진 벼랑의 이름이 본래 ‘水雲臺’라고 이름 하였다가, 김시습이 머물던 곳이라고 ‘清隱臺’라고 이름을 바꾸었다.<sup>58)</sup> 때문에 시에서 말하는 ‘清寒’은 청한자를 말하는 것인데, 곧 김시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선의 자취를 좇아 밤새 고요한 산중에서 배를 띄워 노니는 모습은 신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그 누대는 비어있고, 소나무에 걸린 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모습이다. 공허하고 고요한 이

57) 丁若鏞, 『與猶堂全書』卷22, 「山行日記」.“神女峽, 過玉峽, 稍似開張, 緣溪而至此. 舊名妓亭, 余改爲神女峽. 水上有梅月堂舊跡”(神女峽은 玉峽을 지나 약간 벌어진 이 시냇물을 따라가면 여기에 이르게 된다. 옛날 이름은 妓亭이다. 그래서 내가 神女峽이라고 하였다. 물위에 梅月堂의 유적이 있다.)

58) 金壽增, 『谷雲集』卷4, 「谷雲記」.“有所謂女妓亭, 改以神女峽, 又名貞女峽. 松厓高爽, 俯觀水石. 甚清曠. 名之曰水雲臺. 鄉人傳是梅月堂留賞處. 故後改以清隱臺.”

풍경 속에서 청은자의 정취를 얻어 만끽하는 모습은 시끄러운 세상으로부터 한가롭게 살아가고자하는 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고요한 밤 정취 가운데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는 밤 계곡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연출하고 있다. 실제 신너협의 돌들은 흰 너럭바위와 암석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주변 곳곳에 소나무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어 더욱더 계곡의 풍취가 아름답다. 신너협 위에는 청은대가 지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신너협의 모습을 내려다 보니 시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사진4 -백운담>

四曲川觀倚翠巖	四曲 천관석은 푸른 암벽에 기대어 있으니
近人松影落粼粼	가까이 소나무 그림자는 가지를 길게 드리웠네
奔湍濺沫無時歇	빠르게 흐르는 물살에 쉼 없이 거품을 내뿜으니
雲氣尋常漲一潭	구름 기운 연못에 넘쳐나네

4곡 백운담은 金昌協이 읊었다.<sup>59)</sup> 1구의 천관석은 <華陰洞志>에서 살필 수 있는데, 누대 아래 서쪽 ‘聊淹留亭’ 아래에 커다란 盤石은 무명요를 펼친

59) 丁若鏞, 『與猶堂全書』卷22, 「山行日記」.“白雲潭, 自女峽渡小溪, 轉一厓, 循溪而至此.”(白雲潭은 女峽으로부터 작은 시내를 건너 한 언덕을 돌아서 계곡을 돌면 여기에 이르게 된다.)

것 같으니 열 사람도 앉을만한데, ‘川觀石’이라고 이름 붙였다.<sup>60)</sup> 소나무는 가지를 길게 드리우며 그림자를 만드는 고요한 정취를 풍기고 있고 곁에서는 빠르게 흘러가는 냇물이 거품을 뿜으며 냇가 주위를 감싸고 있다. 실제의 백운담의 모습도 흰 돌들 사이에서 푸른 계곡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고요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울동미가 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고요한 정취 속에서 빠르게 흐르는 물소리는 세상 밖과 차단해주어 작자가 은거의 삶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또한 김수증의 「谷雲記」에도 백운담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다. 본래 백운담은 ‘大撲插’이라 불려졌다. 김수증은 백운담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다.

연못 모양 깊이 움푹 파였으며, 좌우의 큰 바위들이 우뚝하니 뒤섞여 서있어서 그 모양이 마치 거북이나 용이 물을 마시는 듯하다. 물 기운이 세차게 뿜어대는 것이 마치 수많은 기와를 부수는 듯 그 소리가 온 계곡을 진동한다. 보고 있자니 마음이 시원해진다. 물 바닥이 모두 돌인데, 물가에 에 드러난 형세에 따라 높고 낮게 펼쳐 있다. 맑고 반듯하게 되어 펼쳐진 것이 무려 수백걸음이나 된다.<sup>61)</sup>

「谷雲記」를 통해 본다면 백운담에서 발생하는 거센 물소리와 생동감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60) 金壽增, 『谷雲集』卷4, 「華陰洞志」“臺西數十步. 卽聊淹留亭. 亭臺間左右. 種黃菊數百株. 名晚香徑. 亭下大石. 如鋪素氈. 可坐個人. 名川觀石.”

61) 金壽增, 『谷雲集』卷4, 「谷雲記」“潭形深凹. 潭左右. 大石嶮然錯列. 狀如龜龍飲水. 水勢噴激. 如裂萬瓦. 聲振山谷. 見之凜然. 水底皆是全石. 露出崖際者. 隨勢高低. 盤陀淨滑. 延袤無慮數百步”



<사진5 -명옥퇴>

五曲溪聲宜夜深	五曲 시냇물 소리 깊은 밤에 더 좋으니
鏘然玉佩響遙林	패옥소리 쟁쟁하여 아득한 숲에 울리네
松門步出霜厓靜	소나무 대문을 나오니 서리 내린 언덕 조용하고
圓月孤琴世外心	둥근달 외로이 울리는 해금 세속 밖의 마음이네

5곡은 金昌翁이 鳴玉瀨를 묘사한 시이다.<sup>62)</sup> 전반적으로 시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를 서술하였다. 1구, 2구에서 표현하듯이 조용한 밤에 울려대는 물소리는 패옥소리같이 유독 크게 들린다. 결국 화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나무 문을 벗어나 둥근 달을 바라보며 홀로 거문고를 뜯는다. 김창흡은 홀로 거문고를 뜯는 이의 마음을 세상사 모든 일을 잊는다고 표현한다. 홀로 거문고를 뜯는 이는 김수증의 모습으로 생각되는데 곡운에 거처하는 그의 백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六曲幽居枕綠灣      六曲 한가로이 거하여 푸른 물굽이 베개 삼으니

62) 丁若鏞, 『與猶堂全書』卷22, 「山行日記」.“鳴玉瀨, 在雲潭數百步之上. 山下數家, 家僕所居也.”(鳴玉瀨는 雲潭의 수 백보 위에 있다. 산 밑에 두어 家僕이 살고 있다.)

深潭千尺映松關      깊은 연못에는 千尺의 대나무 문이 비추네  
 潛龍不管風雲事      潛龍은 풍운 같은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고  
 長臥波心自在閒      오랫동안 깊이 잠겨있어 스스로 한가롭게 있네



<사진6 -와룡담>

6曲은 金昌直이 臥龍潭을 읊은 것이다.<sup>63)</sup> 와룡담의 물은 매우 깊고 헤아릴 수 없어서 세간 사람들이 龍淵이라고 하여, 가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기원하는 곳이라고 하여, 와룡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sup>64)</sup>

한가로이 거처하는 곳은 籠水亭을 말한다. 그 곳 근처에는 와룡담이 있는데 물이 너무 맑아 대나무 문이 비출 정도이다. 2구의 ‘千尺이 대나무 문이 비추네.’라는 표현을 보면 한가로이 거처하는 김수증의 공간의 주변은 푸른 물굽이가 휘몰아치고 주변에는 높은 대나무들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은 그가 거처하는 곳이 세상과 단절하여 홀로 은거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주변 환경 덕분에 3구에서처럼 세상일에

63) 丁若鏞, 『與猶堂全書』卷22, 「山行日記」.“臥龍潭, 與鳴玉瀨相接. 柳邊積水澄泓, 西望籠水亭, 隱映松林間.” (臥龍潭은 鳴玉瀨와 서로 접해 있다. 버들숲가에 물이 쌓여 맑고 깊다. 서쪽으로 籠水亭을 바라보면 은연히 대나무숲 사이에 비친다.)

64) 金壽增, 『谷雲集』卷4, 「谷雲記」“積水澄泓. 其深不測. 俗稱龍淵. 天旱. 村氓禱賽. 遂名曰臥龍潭.”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은거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김수증의 모습을 3구의 ‘潛龍’, 4구의 ‘長臥’라고 표현하여 세상일에 관심 두지 않고 은둔하여 한가롭게 여생을 보내는 김수증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켰다.



<사진7 -명월계>

七曲平潭連淺灘	七曲 평안한 못, 얇은 여울에 이어져
清漣堪向月中看	맑은 물결은 달을 향하니 볼만하다
山空夜靜無人度	텅빈 산 고요한 밤 지나가는 이 없고
唯有長松倒影寒	오직 큰 소나무 거꾸러진 그림자만 드리워 차갑네

7曲은 金昌業이 明月溪를 읊은 것이다.<sup>65)</sup> 은은한 달빛에 거꾸로 비친 대나무의 고요한 모습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1구에서의 평안하여 잔잔한 물결은 고요하기 그지없다. 2구에서는 이런 잔잔한 물결 속에 달을 품고 있어 밤의 정취를 느끼기에 좋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도 찾는 이 하나 없어 외롭고 쓸쓸한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쓸쓸한 공간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큰 소나무 그림자만이 고요히 드리우고 있다. 1구에서도

65) 丁若鏞, 『輿猶堂全書』卷22, 「山行日記」“明月溪, 在影堂前.”(明月溪는 영당 앞에 있다.)

보이듯이 실제의 명월계의 모습은 얇은 실개천의 모습으로 별다른 큰 광경이 없다. 뒤에 있는 8·9곡도 앞의 1·2·3곡에 비하면 움직임도 크지 않고 주변 환경 또한 자연 환경을 논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8 -용의연>

八曲清淵漠漠開	八曲 맑은 연못 아득히 펼쳐지니
時將雲影獨沿洄	이따금 구름 그림자만 이 홀로 돌아 흐르네
眞源咫尺澄明別	진실 된 근원이 지척에 있어 맑고 명백하니
坐見儵魚自往來	피라미 오고가는 것을 앉아서 볼 수 있네

8곡은 金昌緝이 隆義淵을 읊은 것이다.<sup>66)</sup> 『谷雲集』에서도 나오듯이 명월계를 지나면 용의연이 나온다. 이것을 통해 8곡과 9곡의 장소가 자연스럽게 연결 되고 있다. 이 지역은 평탄한 지역에 위치해 계류가 잔잔히 흐르고 있다. 아득히 연못이 펼쳐진다. 연못 위를 펼쳐다니는 것은 구름 밖에 없다. 고요한 분위기이다. 너무 물이 맑아 앉아서도 피라미가 돌아다니는 것이 다 보인다. 넓은 계곡 가에 흰 암석과 너럭바위가 펼쳐져 있어 앉아서 쉬기에 좋다 실제로도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맑았다.

66) 丁若鏞, 『輿猶堂全書』卷22, 「山行日記」“隆義淵, 在影堂之西.” (隆義淵은 영당 서쪽에 있다.)

九曲層巖更嶄然    九曲 층층 바위 더욱 우뚝 하고  
 臺成重壁映淸川    누대 이룬 겹겹의 벽 푸른 내에 비추네  
 飛湍暮與松風急    흐르는 여울물 저녁 솔바람과 더불어 급하니  
 靈籟嘈嘈滿洞天    신령한 울림소리 동천에 가득하네



<사진9 - 첩석대>

9曲은 洪有人이 疊石臺를 읊은 것이다.<sup>67)</sup>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겹겹이 쌓인 돌들이 누대같이 쌓여 우뚝하고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층층히 쪼개진 바위 사위로 여울물이 빠르게 흘러내려간다. 여울물 소리는 저녁 솔바람 소리와 더불어 골짜기에 가득 메운다. 하지만 시끄럽기 보다는 이 공간이 신령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마치 시끄러운 물소리로부터 세상일에 단절하고 사는 김수증의 모습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가 조세걸을 시켜 화첩을 꾸미고 자식과 조카들

67) 丁若鏞, 『與猶堂全書』卷22, 「山行日記」“疊石臺. 又西轉而行, 左右巖石奇怪, 水瀉其間. 稍上有小塔, 其邊有路, 向白雲嶺.”(疊石臺는 서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좌우에 암석이 기괴하고 물이 그 사이로 쏟아져 내린다. 조금 올라가면 조그마한 탑이 있고, 그 가에 길이 있으니 白雲嶺으로 향하게 된다.)

에게 시첩을 꾸미게 한 것은 곡운에서 잠시 벗어날 때를 대비하여 그의 눈을 즐겁게 하고자 그리게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이의 <고산구곡도첩> 제작과 다른 방향을 보인다. 또한 주자의 무이구곡가와 달리 배를 타고 각 곡을 노래 한 것이 아니라 화첩 그림에 따라 시를 화운한 작업인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주자가 후학을 양성하려는 목적인 무이구곡 경영과 달리 곡운구곡의 경영과 곡운구곡시가 작업은 김수증 본인의 학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구곡가와 구곡 경영에도 차이를 보이는 점일 것이다.

## IV. 谷雲九曲에서의 문학 활동

앞 장에서 구곡가의 연원과 김수증의 곡운구곡시 작업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기사환국 이후에 새로 복거하게 된 화음동정사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김수증의 「華陰洞志」의 내용을 중심으로 김수증이 화음동정사를 조성하게 된 계기와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문학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谷雲 은거 시기에 창작한 시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화음동정사지 조성 및 문학 활동

「谷雲記」에도 나와 있듯이 1668년 김수증은 평감현감으로 부임하던 길에 鋤吾芝里(강원도 화천군 하남면)를 지나다가 근처 화악산과 일대의 풍광의 빼어남을 익히 들어왔으나 찾아보질 못하였다. 그러다가 1670년 가을 서울의 집을 나와 곡운 땅에 자리를 잡고 7칸의 모옥을 짓고 1675년 온 가족을 이끌고 곡운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1689년 ‘기사환국’을 겪으면서 김수증은 다시 곡운 땅으로 들어와 다시는 정사에 뜻을 두지 않는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수증의 은거 방향은 기존의 은거 방향과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처음 곡운 땅에 농수정을 짓고, 김수증이 송시열에게 「籠水亭記」를 부탁한다. 하지만 이 기문에서 김수증이 곡운에 정사지를 마련했다는 정도만 나오지 어떻게 해서 은거처사로 살게 되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기존의 은거지향적인 모습은 가풍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은거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사환국을 겪으며 그의 아우와 송시열이 사사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면서 그는 정치에 뜻을 두지 않고 다시 곡운 땅으로 들어와 새로운

은거지를 찾아 조성하게 된다. 이런 과정으로 탄생된 공간이 바로 화음동정사지다. 김수증의 「華陰洞志」에 따르면 화악산 북쪽 마을을 그가 새로이 ‘華陰’이라 하고 시내는 ‘白雲’이라 이름 지었는데, 谷雲精舍와는 4~5리 쯤 떨어져있다고 기록한다.<sup>68)</sup>

이곳에서 김수증은 만년에 주자서를 탐독하고 세상과 단절 하여 자신의 이상 공간을 경영하기 시작한다. 또한 성리학적 개념을 정사 곳곳에 배치하여 시작활동을 하게 된다.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화음동에 은거하기 이전의 작품들은 대부분 백운산, 금강산 등 명승지를 유람하고 지은 산수유기가 대부분에 속하는데 화음동정사지 기간에 지은 작품들은 정사지 곳곳에 배치된 기물들을 중심으로 쓴 작품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본래의 습성을 버린 것은 아니다. 「遊華嶽山記」만 보더라도 산수유람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을 살필 수 있다



<사진10 - 화음동정사>

화음동정사지는 김수증의 성리학적 이상향이 잘 표출된 대표적인 공간이다. 그 중 상수역학과의 사상적 구조를 건축과 조경으로 표현한 김수증의 생각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곳이다.<sup>69)</sup> 하지만 기존의 성리학자들이 구곡 경

68) 金壽增, 『谷雲集』卷 4, 「華陰洞志」“華嶽之北有洞焉.清幽夔絶.一塵不到.余創名之曰華陰.溪曰白雲.去精舍西南四五里.”

69) 수리철학으로서 음양과 五方位에 奇偶가 작용하여 모든 수리의 형이상학적 이치가 여러 가지 인생 상

영과 은거지에서 후학을 양성하여 학맥을 이어나간 반면 김수증은 곡운구곡 경영 시절과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당쟁을 피해 복거하려는 의지로 조성된 공간 이므로 개인적인 수양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1689년 가을에 시작하여 10년 뒤인 1699년에 걸쳐 완성된 이곳은 김수증이 성리학적 철학관에 입각하여 聊淹留亭을 시작으로 三一亭, 不知庵, 有知堂, 無名窩 등의 구조물들을 차례로 만들어나갔다. 실제의 화음동은 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록의 내용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계곡의 주변 곳곳에는 흰 바위와 암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져있고 물이 흐르는 바위 위에는 이끼들이 끼어있고 주변에는 소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져있었다. 비록 기록에 있는 삼일정, 청몽루 등의 여러 구조물들은 다 없어졌지만, 삼일정(사진10)은 복원되어 계곡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성리학적 사상을 도식화하여 바위위에 太極, 八卦圖, 河圖洛書, 先後天八卦圖 등의 그림을 바위에 그려 人文石이라 하였다. 인문석 이외에도 天根石, 月窟巖 등의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나갔다.

화음동의 형성과정과 기물들을 기록한 문헌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sup>70)</sup>

---

과 우주 순환과 만물 생성에 작용한다고 믿는 것. 위의 책, 강원대학교 박물관, 《화천의 역사 문화유적》, p.130

70) 『谷雲集』 이외에도 『農巖集』, 『三淵集』을 참고하고자 한다.

71) 김수증과 김창협 모두 「有知堂記」 지었다.

72) 金壽增, 『谷雲集』 卷 4, 「清夢樓記」 지금은 청몽루가 없어졌으나 김수증이 지은 「清夢樓記」에 따르면 김수증이 지은 정자임을 알 수 있다. “初於不知菴左偏.設二間屋.名自然室.己卯夏.添造二間.通作房三間.上一間.隔一壁爲僮僕待候之所.下二間.面勢明爽.居處甚適.房之北一間.作小樓而通於房.名之曰清夢.” (처음 不知菴의 왼편에 두 칸 방을 두면서 自然室이라고 이름 하였는데, 을묘(1699년) 여름에 두 칸을 더 지어 방 세 칸이 통하도록 만들었다. 위편 한 칸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어 어린 종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삼았고, 아래쪽 두 칸은 형세가 밝고 상쾌한 대로 지어 바라보아 지내기에 아주 적당하다. 방의 북쪽 한 칸에 작은 누각을 지어 방과 통하게 하였으니 清夢'이라 이름 하였다.)

<표-1> 화음동정사지와 관련된 작품

장소/기물	작품명	저자
華陰洞	「華陰洞志」	김수증
三一亭	「三一亭記」	김창협
	「三一亭上梁文」	
	「三一亭」	김수증
不知庵,	「不知菴記」	김창협
有知堂 <sup>71)</sup>	「有知堂記」	김창협
	「有知堂記」	김수증
人文石	「人文石」	김수증
無名窩	「無名窩戲作」	김수증
	「無名窩」	
	「無名窩記事」	
	「無名窩記」	김창협
淸夢樓 <sup>72)</sup>	「淸夢樓記」	김수증
松風亭	「松風亭記」	김수증

위의 표에는 김수증의 일가의 작품만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농연 형제 또한 그의 백부의 은거지에 교류하며 꾸준히 김수증과 작품 교류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기록들을 통해 기물을 살피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華陰洞志」<sup>73)</sup>에 나와 있는 精舍 공간 형성 과정 순서와 농연형제의 화음동정사지 기록을 참고하여 기물에 대한 명명 작업과 성리학적 사상이 깃든 공간 경영을 살펴보

73) 金壽增, 『谷雲集』卷 4, 「華陰洞志」

고자 한다.

김수증은 「華陰洞志」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庚戌年(1670년)에 谷雲에 자리를 잡고 谷雲精舍를 경영하다가 乙卯年(1675년) 집안을 모두 데리고 와서 지냈고 그 뒤 다시 ‘籠水亭’을 세웠다.<sup>74)</sup>

1670년 처음 곡운에 자리 잡고 5년 뒤인 1675년 籠水亭舍를 짓는 것을 계기로 먼저 화음동 주변에 복거를 한 것이 화음동정사지 경영의 시작이다. 이후에 산을 잠시 나갔다가 1689년 기사환국의 화를 당하자 은거의 의지를 굳히고 ‘聊淹留亭’을 짓는다. 이듬해 1690년 여름에 요엄류정 남쪽에 ‘不知庵’을 짓는다. 부지암은 陸游의 “萬事無如睡不知”<sup>75)</sup>라는 시어에서 취한 말이다. 김수증이 부지암을 지은 까닭을 김창협 기록에도 살필 수 있다. 김창협은 1691년에 「不知菴記」를 짓고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작년 가을에는 또 정자에서 남쪽으로 4, 5리를 가 화악산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언덕을 평평하게 고르고 집을 엮어 거처하였다. 그리하여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이고 여러 겹의 물로 에워싸여 세속과 더욱 멀어졌다. 선생은 그 집을 ‘부지암’이라 이름짓고 소자에게 기문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소자가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까닭을 여쭙자, 선생은 “옛날 방옹(放翁 송나라 육유(陸游))의 시에 ‘만사는 차라리 잠

74) 金壽增, 『谷雲集』卷4, 「華陰洞志」“余於庚戌, 占谷雲, 經營精舍, 乙卯冬, 舉室來棲, 其後又立籠水亭.”

75) 陸游 중국 남송시대의 문인이며 호는 放翁이다. 이 시어는 육유의 <明日午睡至暮復次前韻>에서 취한 것이다. “酒力醺然入四支, 華胥稅駕不應遲. 殘年已覺衰難強, 萬事無如睡不知. 幸有琴書供枕藉, 安能冠帶更支持. 紅爐過盡灰如雪, 獨守青燈坐畫詩.”

들어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萬事無如睡不知]’는 말이 있다. 내 본디 이 말을 좋아하였고 이 암자가 또 마침 華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하여 나 자신을 希夷<sup>76)</sup>에게 빚댄 것이다.” 하였다. 소자는 그 말씀을 듣고 물러나 다음과 같이 감탄하였다.<sup>77)</sup>

먼저 김수증이 육유의 시에서 ‘모든 일 차라리 잠들어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김수증이 세속에 관심을 끊고 석실에서 조용히 은거하겠다는 의미에서 ‘不知’라는 이름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송나라 사람인 希夷에 빚대어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겠다는 의미도 보인다.

그러나 김창협은 김수증의 의도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 「不知庵記」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그러나 소자가 생각건대, 방옹의 시가 좋긴 하지만 잠든 상태가 반드시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잠이 들어 알지 못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잠재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만일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고 눈만 잠이 든다면, 그는 꿈속이 분분하여 제후와 천자도 나타나고 장수와 정승도 나타나며, 말달리고 사냥하고 음악과 여색을 즐기는 일도 나타나며, 빈천하고 근심스럽고 초상을 당하고 재물을 잃고 하는 등의 슬픔도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비록 잠들었다고 말

76) 송나라 사람으로, 자는 圖南이다. 그가 華山에서 도를 닦으면서 곡식도 먹지 않고 한 번 누워서 자면 100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정치가가 나올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고 싫어하였는데, 조광윤이 송을 세우고 태조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박장대소하며 기뻐한 나머지 나귀에서 떨어졌다는 고사도 전해진다.

77) 金昌協, 송기채(역) 『農巖集』 卷24, 「不知庵記」 “去年秋. 又自亭南行四五里. 入華嶽深谷中. 斬木夷阜. 縛屋以處. 於是山重水襲. 人境益遠. 遂名之曰不知菴. 而命小子爲記. 小子不敢辭. 就請其所以名者則曰. 昔放翁有詩. 萬事無如睡不知. 余故甚愛此語. 而是菴也又適在華陰. 故因以名之. 以自託於希夷云爾. 小子於是退而竊歎曰.”

은 하지만, 사물에 접하고 얽매어 분연히 출세를 다투는 것으로 말하면 깨어 있는 때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리고 希夷의 경우를 가지고 말하면, 전란이 계속되던 五代 때를 만나 당대의 일에 대해, 보고 듣는 것을 괴로워하여 책을 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은거하였으니 그의 천 일의 잠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없을 듯한데, 마침내 다시 나귀를 타고 나갔다가 나귀에서 떨어져 돌아온 것은 어째서인가? 아마도 그는 마음까지 잠재우지는 못했었나 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종신토록 높은 누대 위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았더라도 中原의 권력을 차지할 꿈을 잊지 못한 것이니, 이라고도 ‘不知’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선생이 비록 자신을 희이에게 빗대긴 하였지만 마음속에 지닌 것은 다르니, 앞으로 산속에서 보내는 수많은 세월은 실로 모두 선생이 안식에 기대어 코를 고는 날일 것이다. 그리고 선생의 마음속은 필시 텅 비고 고요하여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꿈도 꾸어지지 않아서, 사물이 그 고요함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귀신이 그 사이를 엿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하다면 마음을 잠재웠다 할 수 있고 또 ‘부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sup>78)</sup>

먼저 김창협은 ‘잠든 상태가 반드시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김창협이 생각하는 잠이 들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오직 ‘마음을 잠재우는 자’ 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마음을 잠재운다는 것은 마음이

78) 金昌協, 송기채(역) 『農巖集』 卷24, 「不知庵記」 “抑小子竊念放翁之詩, 善矣, 然睡未必皆不知也. 睡而不知, 唯睡心者能之. 苟不能睡心, 而唯眠之睡, 則彼其夢, 將紛紛然有侯王焉, 有將相焉, 有馳騁弋獵聲色之娛焉, 有貧賤憂苦死喪得失之戚焉. 是雖曰睡矣, 而其與接爲構, 勃然鬪進, 又何異於覺時哉. 今且以希夷言之, 當五代干戈之際, 亦既愁聞悶見於當世之事, 而携書歸隱久矣, 千日之睡, 宜莫能撼. 而乃更騎驢而出, 墮驢而歸者, 亦何爲哉. 意者其猶未能睡心乎. 若然者, 雖終身盤礴於雲臺之上, 而中原逐鹿之夢, 猶在也, 是尙可謂不知乎哉. 今先生, 雖自託於希夷, 而乃其所存有不同者, 從今以往, 山裏許多歲月, 固無非先生隱几打齣之日. 而其方寸之間, 必將沖漠冥寂, 無思無夢, 事物不得入其閑, 而鬼神莫能窺其際矣. 如此而謂之睡心, 如此而謂之不知.”

평안한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이 번잡한 상태에 눈만 감는다면 온갖 잡상과 근심 걱정이 떠오르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은거를 하여 비록 산속에 있더라도 출세를 다투는 때와 무엇이 다를 수 있냐고 보는 것이다.

김창협은 김수증이 회이의 예를 든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송나라 회이가 조광윤이 송나라 태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다 당나귀에서 떨어져 이마가 깨졌다는 고사가 있는데 이런 고사를 가진 회이라는 인물과 김수증을 빗댄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다. 응당 책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백년이던 천년이던 잠들어 흔들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회이가 당나귀에서 떨어진 것은 세상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니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김창협은 이러한 점에서 김수증이 당나귀에 떨어진 것은 세상사에 관심을 두는 회이의 모습을 빗댄 것 보단 책을 가지고 가면 오랫동안 잠들어 깨지 않는 모습에 비유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여겼다.

다음은 부지암 앞에 있는 白雲溪 건너편에 三一亭을 살펴보고자 한다. 삼일정은 료엄류정과 마주보고 서 있는데, 주자의 성리사상을 통해 김수증이 재탄생시킨 장소이다. 종종 지팡이를 짚어가며 삼일정 주변을 돌며 시를 쓰기도 하였다.

小橋閒來往	작은 다리 한가로이 왕래하며
拄杖人文石	인문석에서 지팡이 짚고 서있네
安得起濂翁	어찌 濂翁(주렴계)를 일으킬꼬
與之間無極	그와 더불어 무극을 물어볼까 <sup>79)</sup>

또한 김수증은 「華陰洞志」에서 삼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79) 金壽增, 『谷雲集』 卷1, 「三一亭」

바위의 앞면은 넓으나 뒷면은 협소하여 네 개의 기둥을 세우기에는 용이하지 못하여서 끝내는 세 개의 기둥만 배치했고, 가운데는 짧은 들보를 걸어 들보 세면에는 서까래 세 개를 깎아 꽃아 세 개의 마루기둥에 교차하여 더하였다. 들보 뿌리에는 太極圖를 그려 넣었고 八卦를 늘어놓았다. 서까래 세 개에는 陰陽, 剛柔, 仁義를 나누어 적었으니 글자는 八分(서체의 한 종류임)으로 세 개의 마루기둥에 64卦를 그려 넣었다. 세 기둥은 각각 8면으로 만들었고 무릇 24면을 두어 24절기를 배치하여 지었고, 또 12벽괘를 배치하여 또 12울과 12지를 적었다. 마침내 삼일정이라고 이름 붙인다.<sup>80)</sup>

위의 「三一亭」 시와 「華陰洞志」 기록을 통해 본다면 단순한 기물을 넘어선 작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자의 성리사상을 정자 안에 배치하여 표현하였다. 마치 24절기와 12벽괘, 12울, 12지를 그려냄으로 하나의 장소를 벗어나 또 다른 세계를 축소하여 담아낸 것이다. 또한 조카 김창협 또한 「三一亭記」에서 삼일정이 가지고 있는 이치에 대해 말한다.

어찌하여 삼일정이라고 이름하였는가? 기둥이 셋, 대들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세 개의 기둥과 하나의 대들보에서 의미를 취하였는가? 천(天)·지(地)·인(人) 三才와 한 이치의 象이 있기 때문이다. 삼재와 한 이치를 상징하여 그렇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정자를 짓고 보니 이러한 상이 있었던 것인가?

전에 백부께서 이 시냇가에 와 배회할 적에 보니 바위가 하나 있는

80) 金壽增, 『谷雲集』卷4, 「華陰洞誌」“而巖面前廣後狹, 不容四柱, 遂排三柱, 中懸短梁, 梁之三面, 插三衝椽, 加於三棟之交. 梁根畫太極圖, 旁列八卦, 三衝椽, 分書陰陽剛柔仁義字, 字作八分, 三棟通畫六十四卦. 三柱各作八面, 凡二十四面, 排作二十四節氣, 又排十二辟卦. 又書十二律十二支. 遂名之曰三一亭.”

데, 그 모양이 마치 거북과 악어가 물가에서 별을 쪼이는 것 같았다. 그 등은 정자를 지을 만한데, 앞은 충분히 넓고 뒤는 점차 좁아져서 기둥 세 개만 용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정자를 짓자 이와 같은 상이 갖추어진 것이고, 정자가 완성되어 이름을 붙이자 그 뜻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천지간에 있는 모든 물건은 각각의 수가 극히 일정치 않지만 그 수에는 다 자연적인 상이 있다. 도를 아는 사람은 은연중에 그 수를 관찰하여 그 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데, 몽매한 자는 살피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뿐이다. 이를테면, 黃河에서 나온 신령스러운 말 등에 그려진 그림과 洛水에서 나온 신령스러운 거북 등에 쓰여진 무늬를 사람들은 그저 열이니 아홉이니 하는 수만을 보았다. 그러나 伏羲와 夏禹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천지 생성의 순서와 음양에 따른 짝수·홀수를 한눈에 뚜렷이 알았다. 그리하여 8괘를 만들고 洪範九疇를 서술했던 것인데, 후대의 군자는 어떤 사람이 토끼를 팔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 토끼로도 괘를 그을 수 있다.”고 하였다.

사물을 잘 관찰하는 사람은 사물로 물건을 보지 않고 상으로 사물을 보며, 상으로 상을 보지 않고 이치로 상을 본다. 상으로 사물을 보면 지극한 상 아닌 사물이 없고, 이치로 상을 보면 지극한 이치 아닌 상이 없으니, 비유하자면 庖丁의 눈에는 더 이상 온전한 소가 없는 것과 같다.

이제 이 정자가 기둥이 셋, 대들보가 하나라는 것은 산중의 목동과 나무꾼도 다 가리켜 말할 수 있지만, 그 오묘한 이치와 상은 선생만이 은연중에 이해한 것이다. 선생은 아침저녁으로 그 사이에서 생활하면

서 완상하고 즐기기에 충분할 것이니, 河圖와 洛書를 앞에 펼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자가 지어졌을 때에 선생이 이름을 지은 것은 뜻을 취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부합된 것이니, 참 기뻐할 만한 일이다. 어찌 구구하게 그것을 상징한 것이겠는가.<sup>81)</sup>

삼일정은 처음에 료엄류정과 마주볼 목적으로 지은 구조물이며 人文石에 새겨져 있는 河圖洛書, 先後川八卦, 太極圖를 새겨서 내려다보려고 지은 기물이다. 본래는 4개의 기둥을 세우고자 했지만 바위가 협소해 3개의 기둥밖에 세우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 김창협은 삼재(天·地·人)의 한 이치를 상징하여 정자를 지은 것인지 짓다보니 이런 상을 지은 것인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의도한 것이 아닌 우연히도 짓다 보니 이런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니 기쁘다고 표현한다.

김수증과 김창협을 기록을 통해 본다면 인위적으로 네 개의 기둥을 억지로 짓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살려 기물을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우연하게도 삼재의 형태를 얻어 하나의 이치가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삼일정과 연결되는 인문석에 대해 살펴보겠다. 널찍한 바위 위에 河圖洛書, 先後天八卦, 太極圖를 새겨 넣고 人文石이라命名한다. 만년에 주자학에 빠져있었던 김수증의 성리학적 정신수양 과정이 이런 도식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과정은 「人文石」이라는 시에서도 살필 수 있는데

81) 金昌協, 송기채(역), 『農巖集』卷24, 「三一亭記」. “何取於三柱一極. 以爲有三才一理之象焉爾. 曰是象之而爲也歟. 亦爲之而有是象也. 始伯父杖屨於溪上. 有石焉如龜鼉之曝于涯. 其背可以亭也. 而前贏後殺. 劣容三柱. 因以成之而象具焉. 成而名之而義見焉. 是亦自然而已矣. 凡物於天地間者. 其爲數至不齊也. 而莫不皆有自然之象焉. 知道者. 默而觀之. 無往而不相值焉. 顧昧者不察耳. 河162\_186a之圖也. 洛之書也. 人但見其十與九而已矣. 而伏羲夏禹得之. 則天地生成之序. 陰陽奇耦之數. 一舉目而森如也. 故八卦作焉. 九疇敍焉. 至後之君子. 乃謂觀於賣菟者. 亦可以畫卦. 蓋善觀物者. 不以物觀物而以象觀物. 不以象觀象而以理觀象. 以象觀物. 則無物而非至象也. 以理觀象. 則無象而非至理也. 譬之. 庖丁眼中. 無復有全牛焉. 今是亭也. 其爲三與一者. 山之牧兒蓐叟. 皆可指而言之. 而其理象之妙. 則先生獨默契焉. 蓋朝夕俯仰其間. 有足玩以樂之. 而無俟乎圖書之陳於前矣. 然則是亭之作. 而先生之名之也. 惟無意於取義. 而邂逅相值. 爲可喜耳. 豈區區象之云乎.”

그가 평소 주자를 흠모하는 마음을 살필 수 있다.

聞昔雲臺翁      예전에 운대에 거처하던 노인이  
經營閣阜(皂)石      閣阜山<sup>82)</sup>의 돌을 가지고 경영하였네  
圖象我所昧      도상은 내가 모르는 바이고  
聊爾效前跡      애오라지 그의 앞선 발자취를 본받을 뿐이네<sup>83)</sup>

운대에 거처하던 노인은 주자를 말하는 것이다. 주자가 주렴계의 초상과 태극도를 각조산의 돌에 조각하였다는 말이 나온다. 3~4구의 내용에서도 나오듯이 김수증은 이런 모습을 알지 못하나 주자의 발자취를 좇아 본인도 본받을 뿐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김수증이 인문석에 도상을 새긴 이유를 살필 수 있다.

1693년 가을에 김수증은 석실에서 화음동 부지암으로 돌아와 세 칸짜리의 방을 마련하여 ‘無名窩’를 짓는다. 무명와는 부지암과 짝을 이루는 공간이다. 다음 시에서도 이런 내용을 살필 수 있다.

彼菴名不知      저 암자 이름은 ‘不知’이고  
此窩亦無名      이 움집 이름 또한 ‘無名’이다  
客來漫相問      손님 오면 서로 편하게 질문하고  
一笑倚虛亭      한 번 웃고 빈 정자에 기대네<sup>84)</sup>

무명와 동쪽 한 칸에 특별히 단청하여 제갈무후와 매월공의 초상을 모셔

---

82) 각조산은 지금의 중국 장수시 거산진 남동쪽에 위치하는 산이다. 무이산의 서쪽으로 이어진 산이다. 산의 모습이 마치 閣과 닮고 색이 검다는 뜻의 皂(皂)를 써서 각조산이라고 불린다.

83) 金壽增, 『谷雲集』 卷1, 「人文石」

84) 金壽增, 『谷雲集』 卷1, 「無名窩」

놓고 ‘有知堂’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김수증은 「有知堂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처음 산에 들어 그 와룡담이 있는 것을 가지고 회암 선생의 여산에서의 거동을 모방하고자 하였고, 또 가까이 매월당의 유적이 있어 이를 용의연이라고 이르는 곳이 있어 장차 연못 위에 당 하나를 세워 그 안에 제갈무후와 매월당의 진상을 두어 우러러 사모하는 뜻을 붙이고자 하였다.<sup>85)</sup>

이런 점은 김창협 의 「有知堂記」<sup>86)</sup>와 송시열의 「次谷雲所用放翁韻」<sup>87)</sup>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無名’이라는 말은 康節 邵雍(1011~1077)<sup>88)</sup>의 「無名公傳」에서 나온 말이다. 소옹이 洛陽에 살 때에 자호를 ‘無名公’이라고 한다. 소옹은 ‘安樂窩’라는 집을 짓고 그곳에서 시를 지었다. 그곳에 하고 「無名公傳」을 짓게 되는데, 「무명공전」은 소옹이 자신을 치켜세워 쓴 책인데, 無名の ‘名’은 명

85) 金壽增, 『谷雲集』卷4, 「有知堂記」“初余入山. 以其有臥龍潭. 欲倣晦翁廬山之舉. 又近有梅月堂遺址. 而又有所謂隆義淵者. 將立一堂於淵上. 中置武侯, 梅月眞像. 以寓瞻慕之意.”

86) 金昌協, 송기채(역), 『農巖集』卷24, 「有知堂記」“吾伯父谷雲先生, 既作不知菴於華嶽山下白雲溪之上, 以居焉有年矣. 間又得地於菴北數十步, 作小屋曰無名窩者, 以與菴相對. 蓋屋凡三間, 而別其東一間, 加丹牖焉, 以奉漢丞相諸葛忠武侯與本朝梅月金公之像, 而名之曰有知堂.”(우리 백부 谷雲선생이 華嶽山 기슭 白雲溪 가에 不知菴을 지어 거처하신 지 몇 년이 되었다. 근래에는 또 부지암에서 북쪽으로 수십 보 되는 곳에 땅을 얻어 ‘無名窩’라는 작은 집을 지어 부지암과 마주하게 하였다. 그 집은 모두 세 칸인데, 동쪽 한 칸에 특별히 단정을 하여 漢나라 승상 제갈 충무후와 本朝 梅月 金公 의 초상을 모셔 놓고 ‘유지당’이라고 이름하였다.)

87) 宋時烈, 이성우(역), 『宋子大全』卷4, 「次谷雲所用放翁韻」“移家新作數椽宮, 楓嶽之西漢水東. 爭說此身逃物外, 誰知至樂在憂中. 心遊今古襟懷遠, 案有詩書事業鴻. 最是臥龍祠裏像, 神交冥漠思無窮.”(이사하여 새로 두어 칸 집 마련하니 풍악의 서쪽 한강의 동쪽이라네 이 몸이 물외로 도망했다 말들 하지만 지극한 즐거움 걱정 속에 있음 뉘 알리오 마음은 고급에 노니 회포가 원대하고 책상에는 시 서 있으니 사업이 크구나 무엇보다 와룡사 속의 초상에 신의 사귀 명막하여 생각이 무궁하다네)

88) 康節 邵雍(1011 ~1077)은 중국 북송의 학자이다. 도가에서 상수학을 배우고 상수중심의 관념론적 철학을 창시했다. 주역의 태극, 양의, 사상, 팔괘의 도식이 만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팔괘가 교차하여 만물들이 창조된다고 생각하였다.

리를 뜻하는 것으로 명리를 좇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평소 인문석과 삼일정에 팔괘와 도식을 그려온 김수증에게 소옹의 상수학은 큰 영향을 미친 요소임이며 김수증 또한 명리를 좇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곳에서 김수증은 간혹 시를 쓰고 책을 읽기도 하였다. 「無名窩記事」에서 보이듯이 부지암은 시내의 남쪽에 의지하여 동북으로 흐르고 무명와는 서남을 바라보는데 지세가 훤히 트여 햇빛과 달빛이 듬뿍 들어 책 보고 글 쓰기에 좋다고 말하고 있다. 89)

또한 전원의 삶을 즐기고 있는데 양봉을 하고 참외도 짓고 계집아이종들이 일하고 있는 한가로운 모습이 정겨움을 느끼며 일상적인 느낌의 시들을 써내려갔다. 이런 모습은 앞의 IV-2에 나오는 「無名窩戲作」에서도 보인다. 이를 통해 명리를 좇지 않고 은일거사의 모습으로 삶을 대하는 김수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松風亭을 살펴보겠다. 송풍정의 위치는 무명와실에서 부지암터로 건너가는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松風亭記」에 따르면 김수증이 화음동에 자리를 대강 자리를 꾸려 갖추니 정자와 누대를 오르내리며 편하게 지냈는데, 부지암으로 건너는 다리에 편안히 쉴 수도 없어 바위 위에 한 칸을 짓게 되었다.90) 무명와에서 나와 남북으로 뻗은 두다리를 건너면 키 큰 소나무들이 주변에 드리우며 상쾌한 정치의 기운을 내고 있다.

다리를 건너 부지암으로 가면 왼 쪽에 두 칸의 방을 둔 자연실이 있는데, 1699년 여름에 두 칸을 더 짓고, 방의 북쪽에 한 칸의 작은 누대를 짓고 ‘清夢樓’라고 이름을 붙였다. 「清夢樓記」에서 나와 있듯이 김수증은 청몽루에

89) 金壽增, 『谷雲集』卷4, 「無名窩記事」“蓋菴據溪之南而向東北. 窩則負叢桂峯而面西南. 地勢高敞. 得日月多. 窓牖洞明. 甚宜看書寫字.”

90) 金壽增, 『谷雲集』卷4, 「松風亭記」“余之入華陰. 粧點溪山粗備. 可以自適. 上下亭臺. 逍遙澗曲. 當其炎燠. 納涼於閒來往橋. 亦足以濯清風也. 然橋道廣纔數尺. 不能安坐. 又不可以假息. 遂作125\_221d亭一間於巖上”

서 화악산의 정경을 바라보며 자연을 완상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청몽루기의 터를 찾을 수 없고 기록을 살펴 청몽루가 있었다는 것만 알 수 있다.

화음동정사지와 관련된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김수증의 평소 작품 주제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바로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상적인 소소함을 소재를 사용하였다. 부지암에서의 텃밭의 오이와 참외를 기르는 일상의 모습, 청몽루와 삼일정에 올라 탁 트인 화악산의 정경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산수를 진정히 즐기는 은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화음동 곳곳의 건축물과 기물에 성리학적 사상을 입혀 김수증의 소우주가 잘 표현되고 있다.

## 2. 谷雲 시기 창작한 시문에 대한 분석

김수증의 『谷雲集』은 김수증의 조카 昌翁에 의해 시문이 정리되었다. 창흡은 자신의 아들인 致謙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낸다.

백부의 문집을 장차 嶺營에서 간행한다고 말하니 어찌 매우 기쁘지 않겠는가. 5권의 책을 열람하여 세세히 살펴보고 다시금 점을 찍어서 보낸다. 그리고 가기는 곧 모두 조부의 가르침을 펼쳐 서술한 것이니 삼가 그 저술은 매우 실속 있어 문자 또한 좋으니 가히 손댈 것이 없는 까닭에 그것을 모두 온전히 싣고자 한다. 91)

이를 통해 김창흡의 『谷雲集』 발간의 동기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김창흡도 『谷雲集』의 모든 작품을 수록하지는 않았다. 곡운 경영에 들어가기

91) 金昌翁, 『三淵集』卷17, 「答致謙」“伯父文集, 將入梓于嶺營云, 何等喜幸. 來五冊, 靜裏細閱過, 更爲打點以送. 而家記則皆是陳世德述祖訓, 勤摯著實, 而文字亦好, 不可加手, 故欲全存之.”

전의 작품은 신기에는 부족하여 대부분의 『谷雲集』의 내용이 곡운 경영 이후의 작품들을 수록한다고 밝힌다. 또한 앞에서 여러 번 논하였듯이, 산수를 완상하고 시사에 관여하지 않은 그의 성품을 잘 반영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谷雲集』은 주로 詩와 山水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장에서는 1~2권의 시를 통하여 김수증의 문학 취향을 통한 山水 의식을 살펴보겠다.

김수증은 젊은 시절부터 성품이 조용하였고 조부 김상헌과 부친 김광찬으로부터 내려오는 가풍에 영향을 받아 산수와 은거의식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자연을 완상하고 즐기는 조용한 성품은 그의 시에서도 보이는데, 『谷雲集』에 실린 540여수의 한시들은 대부분 김수증 자신이 삶 속에서 얻는 소소한 일상들을 읊은 ‘연작시’가 대부분이다.<sup>92)</sup> 김수증에게 시는 자연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풀어나가는 도구이다. 그는 시에 능한 것은 아니나 스스로 즐길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sup>93)</sup>

我本不能詩	나는 본래 시에 능하지 못해
優游徒自適	노닐며 스스로 즐길 뿐이다
強作五字句	억지로 다섯 구를 지으니
何論古調格	어찌 옛 격조를 논하겠는가
聊寫我懷抱	애오라지 내 회포를 그리니
寧爲人眼目	어찌 다른 사람의 안목을 위한 것이라
可笑雲溪水	가히 웃을만하다 운계의 물이여
不洗徐凝惡	씻어내지 않으면 서서히 악이 응집될 것이니 <sup>94)</sup>

92) 1653~1701에 읊은 시들 중에서 대부분의 시들은 연작시로 이루어진다. 「成都述懷」 23수, 「谷雲秋懷次文谷韻」 8수, 「精舍初成 適逢重陽 菊花正開 以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分韻書懷 寄退憂 文谷」 10수, 「閏三月初八日 還華陰 留四十二日 逐日所接所懷 山中景色 無不形諸楮毫 此不足爲詩 而皆是實跡 聊爲破悶之資 以自觀焉」 98수, 「臘月初七日 自京還華陰 正當嚴沍 閉門無聊 口占七絕 寫境書懷 不覺其多 意或重複 辭亦鄙俚 只爲消遣之資 不可與不知者道 聊示子姪輩云」 110수 등의 다수의 작품들이 있다.

93) 유준영 이종호 윤진영(공저), 『권력과 은둔』, 북코리아,

시에서 김수증은 5구의 시를 짓는 활동은 자신의 회포를 그려내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안목을 위해 시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옛 격조를 논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소 순수하게 자연의 삶의 느낀 바를 통해 시를 짓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김수증은 별열가문의 종손이다. 은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컸지만 종손의 임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지방현감의 자리도 역임하고 석실과 서울을 오가면서 시를 남기기도 한다. 이런 오가는 도중에 느끼는 감회를 시로 남기었다.

馬首何堪更向西	말머리를 어찌 다시 서쪽으로 향하랴
憂端直與終南齊	수심은 바로 종남산과 같다
寒天暮色郊墟外	추운 하늘 저녁 빛 교외 언덕의 밖은
倦鳥投林好定棲	지친 새가 숲을 찾아 등지에 깃들려고 하네 <sup>95)</sup>

말머리를 다시 서쪽으로 향하려는 김수증의 수심은 깊다. 은거를 자처하고 싶지만 가문의 종손의 역할을 다해야하는 임무를 저버릴 수 없다. 이런 처지에 처한 모습을 ‘새’에 비유하여 어쩔 수 없는 그의 수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하지만 그는 기사환국이 발생하고 화음동으로 들어와 은일적인 삶을 산다. 화음동은 운영하고 종종 농수정에 올라 시와 독서를 즐기곤 했다.

孤亭幽絕倚層巒      외로운 정자 그옥이 층층 멧부리에 기댔으니,

94) 金壽增, 『谷雲集』卷2, 「閏三月初八日. 還華陰. 留四十二日. 逐日所接所懷. 山中景色. 無不形諸楮毫. 此不足爲詩. 而皆是實跡. 聊爲破閑之資. 以自觀焉.」

95) 金壽增, 『谷雲集』卷2, 「入城」

萬壑清流隔世間      만 골짜 맑은 물이 세상과 막았구나  
 自覺心閒身更遠      마음 한가하면 몸도 멀어짐 절로 깨닫나니  
 是非何得到靑山      시비하는 소리 어떻게 청산에 이르겠는가<sup>96)</sup>

김수증이 최고운 시에 화운한 것이다. 외로운 정자가 푸른 산에 기대어 있다. 하지만 수많은 골짜기와 맑은 물줄기가 정자와 세상 사이를 막고 있다. 때문에 세상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 몸과 마음이 절로 한가해서 푸른 산에서 적막을 즐기고 있다. 김수증의 은둔처사의 모습이 잘 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수많은 문인들에게 회자되며 차운된다. 이는 V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百淵深處玉峯森      백연 깊은 곳에 옥봉이 숲처럼 이루어져있고  
 衰病何能更遠尋      쇠하고 병들어 어찌 능히 다시 멀리 찾으리  
 亦有仙區還在邇      또한 신선의 구환이 근처에 있으니  
 萬重雲木接華陰      높고 많은 구름과 나무 화음과 이어져있네<sup>97)</sup>

말년에는 병이 들어 화음동과 서울을 오가면서 지냈다. 위의 시는 그가 죽기 1년 전에 화음동의 모습을 읊은 것이다. 번잡하고 깊은 백연 속에 옥봉이 줄지어 있다. 이곳에 신선이 사는 곳과 가까이 있으니 바로 화음동이라고 표현한다. 김수증은 자신이 거하는 거처가 신선이 사는 곳과 같다고

96) 金壽恒, 유영봉·김건우(역) 『文谷集』 卷3, 「敬次伯氏籠水亭和崔孤雲韻」 이시는 『谷雲集』에 실려 있지 않아 『文谷集』의 기록을 따른다.

97) 金壽增, 『谷雲集』 卷2, 「余入谷雲峽. 人流傳華嶽之東. 有所謂陸靑陳田. 不知陸靑是何樣人. 亦未詳其處矣. 近聞權元之 順善 之言則曰. 十數年前. 過春川府. 因一蓼商. 聞其地最深. 可以避世耕鑿. 本府麒麟縣. 又有陸靑基云. 今年三月. 還華陰. 即使家僮之習山行者往訪. 則數日探視而還. 言其地果在華嶽獅子峯之東. 踰華陰東峯數十里. 得一奧區. 四面險截. 人跡斷絕. 牛馬不可通. 穹林蔽日. 其中可以置屋. 有一流民居在洞門東十餘里外. 絕逕緣厓. 下臨不測. 男婦數人方入來. 結芟舍作火田云. 聞之悠然起興. 聊賦二絕. 以寄遐想」

표현하고 있다. 이 시뿐만 아니라 곡운구곡시에서도 보이듯이 종종 세속과 은거지의 공간을 나누는 시도가 발견된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물소리가 상쾌하게 들려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것, 다리가 끊겨 아무도 오갈 수 없다, 구름이 애워싸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김수증의 절속의 의지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또한 김수증은 부지암에서 참외와 꽃 등을 가꾸며 전원의 삶을 즐기고 있다. 소소한 일상생활을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살펴보겠다.

非僧亦非俗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無知又無名	무지와 무명이다
少也不如人	젊어서 남과 달랐고
老而無所成	늙어서도 이룬 바도 없네
事業誠荒唐	하는 업은 진실로 황당하고
生理懶經營	생을 경영하는 것에도 게으르다
謂是年紀少	나이가 적다고하나
白髮垂兩耳	백발이 양 귀를 덮었네.
謂是七十翁	칠십 먹은 늙은이라 이르나
動作同幼稚	움직임은 어린아이와 같네
入山豈忌虎	산에 들어갈 때 어찌 호랑이를 꺼리겠고
臨水徒羨魚	물에 들어갈 때 한갓 물고기를 꺼리겠는가
爲農付頑僮	농사를 미련한 종에게 맡기니
耘穫多見誣	김을 매고 수확하는 것 눈 속이는 것이 많고
養蜂割蜜少	양봉해도 얻는 꿀은 적으니
村人笑其愚	마을사람들이 어리석다 비웃는다
盤飧豐不豐	소반의 먹을 것 풍년이던 풍년이 아니던

朝哺飯一盂	아침저녁으로 한 사발씩 때운다
廚庖潔不潔	주방이 깨끗하건 깨끗하지 않건
赤脚擁兩雛	또한 계집종이 두 병아리를 키운다
不是聞韶樂	순임금의 음악을 듣는 것은 아니나
忘味逾三月	맛을 잊고 삼 개월을 지낸다
醬如君子交	장은 군자의 사귄과 같으니
得亦聖難食	얻는다 하여도 또한 성스러워 먹기 어렵다
粥或不點鹽	죽은 간혹 소금을 치지 못하고
菜多不沾油	나물은 기름을 치지 못한 때가 많다
雖然此亦足	비록 이 또한 족하니
隨分無苟求	분수를 지킬 뿐 구차함을 구하지 않는다
塊處一室內	한 방 안에서 덩그러니 처해있니
有似鳥粘繭	마치 새가 끈끈이에 달라붙은 듯하네
獨夜苦無睡	홀로 밤에 괴롭게 잠을 이루지 못하니
嶺月曙光疑	고개의 달이 새벽빛인가 의심이 되네
出門何所之	문을 나가 어느 곳으로 가는가
樵牧爲隣比	나무꾼과 목수와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네
上客趙司果 <sup>98)</sup> ,	상객은 趙司果 이고
狎友訥禪師	친구는 홍눌 <sup>99)</sup> 선사네
徘徊溪路側	계곡 길을 배회하니
水石映門扉	수석이 문 사립에 비추네
新窩更爽朗	새로 지은 무명과 더욱 상쾌하고
秋山繞清輝	가을 산은 맑은 빛에 휘감겨있네

98) 司果 : 조선시대 오위의 정6품 관직

99) 회양부사 시절에 금강산 유람을 하며 친해진 승려 홍눌을 말한다. 김수증을 따라 화음동으로 들어온 홍눌은 '반수암'을 짓고 화음동에 기거하며 김수증과 교류를 한다.

有誰知樂否      누가 이 즐거움을 알겠는가  
 悠然自忘機      유유히 스스로 망령된 생각을 잊었네<sup>100)</sup>

화음동의 무명와에서 노닐면서 지은 시이다. 자신을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무지의 무명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마치 새가 끈끈이에 달라붙어 있다고 표현하여 답답한 자신의 신세를 표현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받아드려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삶속에서 분수를 지키며 사는 모습은 참다운 은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화음동에서 은거를 하다 김수증은 병을 얻게 된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간 김수증은 1696년 서울에서 화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衰相駸駸病日增      쇠약한 얼굴 점점 병이 날로 더하니  
 煙霞清興亦難乘      연하의 맑은 흥취 또한 타기 어렵네  
 天寒空谷來人少      날씨가 추운 빈 곡에 찾아오는 이 적으니  
 閉戶聊爲粥飯僧      문 닫고 애오라지 먹고 노는 스님 되었다<sup>101)</sup>

서울에서 화음으로 돌아와 추운 겨울날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 무료하다. 홀로 무료하게 거하는데 문 닫고 거하는 모습이 마치 스님 같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자 서울과 화음을 오가다 1698년 여름에 다시 화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을에 역병이 생겨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서울 집에서도 병을 얻어 양주의 석실에서 거하게 된다.

위의 「無名窩戲作」와 바로 아래의 시에도 중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김수증이 성리학 이외에도 불교에도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변 승려

100) 金壽增, 『谷雲集』卷2, 「無名窩戲作」

101) 金壽增, 『谷雲集』卷2, 「臘月初七日. 自京還華陰. 正當嚴沍. 閉門無聊. 口占七絕. 寫境書懷. 不覺其多. 意或重複. 辭亦鄙俚. 只爲消遣之資. 不可與不知者道. 聊示子姪輩云」7, 8수

들과 종종 교류를 하곤 하였다. 이것만 살펴보아도 김수증이 주자에 빠져 살았지만 불교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회양부사로 있을 시절 금강산에서 친해진 홍눌 스님을 불러다가 반수암을 짓게 하여 교류한 기록도 있다.

앞의 내용들을 통해 본다면 김수증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곡운과 화음동을 경영하면서 지은 시들이 대부분이다. 일상적인 삶을 그려내는 시작활동을 통해 김수증의 담백한 은거생활이 그려지고 있다. 처음 서울과 곡운을 오갈 적에 지은 시에서는 종손의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다. 하지만 무명사에서 노닐며 지은 시에서는 별다른 사건이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전의 시와 비교한다면 더 편안해 보이는 김수증의 모습이 보인다. 또한 기사환국으로 인해 화음동에 절속하여 들어갔지만 김수증은 그 생활을 답답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는 진정한 은거처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살펴본 시들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대부분의 시는 격동적이고 활동적인 느낌은 없다. 자칫 심심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는 김수증의 평소 조용하고 자연을 즐기는 성품의 영향이 큰 것이라 판단된다.

## V. 谷雲九曲 중심의 시문창작의 문학사적 의의

앞에 장에서는 김수증의 곡운 경영과 은거지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김수증의 정사 경영이 후일 노론계 성리학자들의 귀감이 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곡운 구곡과 화음동정사지를 답사한 문인들의 작품들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많은 문인들이 있지만 장동 김문의 기록과 춘천기행을 통해 새로운 곡운구곡시를 작성한 정약용의 기록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김수증 일가와 접촉한 몇몇 인사의 작품을 살펴보겠다.

### 1. 壯洞 金門의 시증심의 문학적 교류

김수증은 곡운 경영을 통해 곡운 주변과 화음동 중심으로 그의 형제 조카들과 문학적 교류를 맺었고 이러한 문학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문학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수증이 서울과 곡운을 오갈 적에도 김수증의 형제인 김수항과 김수홍의 교류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그의 아우 수항은 조부부터 이어온 은거의식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런 은자의 꿈을 삼형제가 모두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시 속에 자주 표현하였다. 시 속에는 종종 형제가 함께 은거의 약속을 이루어 함께 지내는 모습을 염원하는 시를 지어왔다.

百折清溪繞碧巒	백 번 굽이치는 맑은 계곡물이 푸른 산 두르니
茅茨寄在水雲間	초가집이 물과 구름 사이에 붙어있지요
何時得遂鵲原約	어느 때나 형제들과의 약속 이루어

棲息同分一半山     다 함께 산 하나를 반으로 나눠 깃들까요<sup>102)</sup>

농수정에서 김수증이 최고운의 시에 화운한 것에 김수항이 차운한 시이다. 3구에 보이는 ‘鵲原’은 『시경』 「소아」에 나오는 ‘할미새가 언덕에 있으니 형제가 급난을 구한다.(脊令在原, 兄弟急難)’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寂寞孤懷只自知     적막해라 외로운 회포 나만 홀로 아나니  
天涯又復送秋歸     하늘가에서 또 다시 가을 가는 걸 전송하네요  
陶山松菊雲溪水     도산의 솔과 국화 백운 계곡의 물을  
惆悵空尋夢裏期     슬프도다 꿈속에서 부질없이 찾아갈 기약이여<sup>103)</sup>

김수항이 가을날 김수증을 찾아 뵙고 다시 남양주로 돌아와 쓴 시이다. 김수증이 먼저 시를 부쳐 가을날 돌아가는 김수항의 모습을 가슴아파했다. 이에 김수항은 꿈속에서라도 다시 찾아 뵈 기약을 바라고 있다.

楚江秋色近黃昏     남방 강물은 가을빛으로 황혼에 가까워  
竹雨蟲聲坐獨聞     대숲의 비와 벌레 소리 홀로 앉아 듣자니  
忽憶鵲原千里外     갑자기 천리 밖의 형제들 그림기만 한데  
滿山流水掩柴門     온 산에 물이 흘러 사립문을 닫았답니다<sup>104)</sup>

102) 金壽恒, 유영봉·김건우(역) 『文谷集』 卷3, 「敬次伯氏籠水亭和崔孤雲韻」

103) 金壽恒, 유영봉·김건우(역) 『文谷集』 卷3, 「敬次伯氏寄示韻」 김수증의 원운은 다음과 같다. 이 시는 『谷雲集』에 실려 있지 않다. “世事紛紛不可知, 秋懷慄慄送將歸. 鴈巖雲洞無多地, 安得同爲歲暮期.” (세상일 복잡해서 알 수 없기에, 가을날 마음 아파하며 돌아가는 걸 전송했지. 음양과 백운동 땅 멀지 않으니, 어떡하면 세모의 약속 함께할 수 있을까.)

104) 金壽恒, 유영봉·김건우(역) 『文谷集』 卷4, 「敬次伯氏書懷寄示韻」

위의 세 수를 살펴보다도 김수항이 꿈꾸오는 은거 삶을 살펴 볼 수 있다. 김수항은 ‘鵠原’의 고사를 자주 언급하는데 이를 통해 김수증, 수홍, 수항 3형제의 우애를 살필 수 있겠다. 하지만 기사환국으로 두 아우를 잇달아 잃게 되어 결국 김수증 홀로 조부의 명맥을 잇게 되고 자신의 명맥을 후대에 잇게 하고자 한다.

김수증은 자신의 문학적 명맥을 아들 昌肅이 잇기를 바랐었다. 하지만 자식 없이 요절하자 셋째 아들 昌直의 아들을 후사로 삼았으나 요절하고 아들 昌集의 아들 好謙을 후사로 삼았으나 또한 요절하게 된다. 결국 그의 학문은 그의 조카인 농연형제에게 이어졌고 김수증 사후에 三淵이 화음동으로 들어와 은거하게 된다.

김수항은 아들 김창협에게 화도시를 지어 자식을 훈계하는 내용을 담아 여러 자식들에게도 보여주길 바랐다.<sup>105)</sup> 또한 자식들에게 「遺誠」를 남기

105) 金壽恒, 유영봉·김진우(역) 『文谷集』 卷7, 「次《命子詩》韻, 書與協行 兼示諸兒」 “我金之顯 肇自李唐 煌煌太師 功烈輝光 猶良佐漢 若望克商. 分茅錫土 奄有古昌 自麗迄今, 天星幾周. 維桑與梓, 鬱彼故丘. 重圭累組 遺澤永流 積善袞袞 宜公宜侯. 於皇我祖 步武夔龍 太上是立 奚止言功 義著漢堞 倫敘箕封 千秋孤竹 伯仲比蹤 青青寒松 不改舊柯 皎皎孤鶴 或買罽羅 吁嗟我祖 遭世之宸 雪窩有詠 流響胡沙 奮若之會 喜甚同德 天之不祚 遺恨宗國 事有萬變 一心靡忒 持敬之功 無入不得 于堂于構 敢忘本始 眷彼先廬 北山之里 烝烝我考 齋扁知止. 窮也非戚 達也非喜 自我孤露 風樹靡及 終焉顛躓 豈曰成立 昔承祖訓 名譽非急 靜思莫追 中夜啜泣 蛾述鳥習 俱取其時 九四之教 我祖我思 嗟爾小子 式克欽茲 希之則是 夫豈遠而 汝隨我南 時維流火 迨茲冰至 汝始辭我 安時處順 何適不可 三餘之業 天實汝假 名汝汝汝 自汝嬰孩 悔我既往 勸汝方來 盡性踐形 是參三才 日邁月征 念哉敬哉”(우리 안동 김씨의 현달함, 당나라 때부터 시작했지. 위대하신 저 태사공이여, 공렬히 찬란히 빛나누나. 장량처럼 한나라 보좌했고, 강태공처럼 상나라 정벌했지. 띠풀로 봉토를 하사받아, 드디어 고창을 다스렸네. 고려에서부터 지금까지, 별이 몇 번이나 운행했던가. 뽕나무 가래나무 심었던 곳, 울창한 저 고향 언덕이로다. 높은 관원 계속 배출했으니, 남긴 은택이 길이 흐르누나. 선 쏠은 경사가 이어져 가니, 당연히 공경대부가 되리라. 아, 위대한 우리 선조여, 기룡의 발자취를 잇고, 최상의 덕을 세웠으니, 어찌 입언과 입공뿐이리. 의리가 남한산성에서 드러나고, 윤리가 기자 조선에 펼쳐졌네. 천추의 고죽군이여, 형제가 자취 나란히 하셨지. 푸르른 겨울철 소나무, 옛가지 바꾸지 않았건만. 회고 흰 외로운 학이여, 더러 새그물에 걸렸지. 아, 우리 조부께선, 세상의 변고를 당하여. 설교에서 시를 읊조리니, 사막까지 울려 퍼져 나갔네. 정축년을 맞이하여, 덕을 함께해 매우 기뻐지만, 하늘이 복을 내리지 않아, 나라에 통한을 남겼네. 일이 만 가지로 변하지만, 한마음으로 어기지 않았지. 경을 간직하는 공부, 어디에서나 자득하였네. 가업을 이어 집 지으니, 감히 근본을 잊으리오. 저 선조의 집을 돌아보니, 복산의 마을에 있도다. 효성스러운 우리 선친께선, 재실에 지지라고 편액했지. 곤궁해도 슬퍼하지 않고, 현달해도 기뻐하지 않았지. 내가 고아가 된 이후, 풍수지탄에 가슴이 미어져. 끝내 넘어가고 말았으니, 어찌 다 자랐다고 하리오. 선조의 가르침 받들 적, 명성은 급선무 아니라고 했건만. 고요히 생각하니 돌이킬 수 없어, 한밤중에 눈물 흘렸지. 개미나 새가 계속 익히니, 모두 제때를 취하는 것이지. 구용과 사물의 가르침, 선조께서 후손 생각함이라. 아, 너희 소자들아, 이를 잘 본받아라. 바란다면 될 수 있으니, 어찌 멀다고만 여기리오. 나 따라 남으로 울적에, 시기

어 ‘謙退’의 뜻을 지나라고 자식들에게 유언하였다.

내가 바탕에 재덕도 없이 한낱 선대의 음덕으로 두터이 나라의 은혜를 입어 지위를 훔치고 분수를 뛰어넘어, 스스로 재앙을 빨리 오게 하였다. 오늘 일은 가득 넘치어 그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물러나길 구하였으나 얻질 못했고 이에 이르러서 비록 후회하는데 미친들 어찌하겠는가. 무릇 나의 자손은 마땅히 나를 경계로 삼아 언제나 謙退의 뜻을 지니도록 해라. 벼슬길에 나가서는 높은 요직을 멀리 피하고, 집안 생활에서는 공손과 검약을 힘써 행하도록 해라. 교유를 삼가고 의론을 간략히 함에 이르러서는 처음과 같이 선대에 남기신 법도를 따라, 몸을 이끌고 집안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삼는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이제 여러 손자의 이름에 ‘謙’자를 붙인 것도 바로 이러한 뜻에서다. 옛 사람은 독서하는 종자가 끊어지게 해서 안 된다고 했다. 너희가 능히 부지런히 여러 자식들을 가르쳐, 마침내 충효와 문헌의 전통을 실추시키지 않는다면, 문호를 지키는 것이 꼭 과거 시험이나 벼슬길에만 달려 있지는 않을 것이다.<sup>106)</sup>

이 유계를 따라 농연형제는 각각 三淵(경기도 남양주)과 鷹巖(경기도 포천)에서 머물며 강학에 힘썼다. 평소 곡운 땅을 자주 하던 농연형제는 김수증이 보내는 시에 차운하거나 김수증의 명에 따라 시를 짓기도 하였다. 하루는 김창협이 곡운에 방문하고 시를 짓게 된다.

---

가 칠월이었는데. 어느새 얼음 어는 때가 되어, 네가 이젠 작별하는구나. 시운대로 순리 따르면, 어딜 간들 불가하겠느냐. 삼여의 학업이란, 하늘이 너에게 빌려주는 것. 너희에게 이름과 자를, 아이 적에 붙여 주었는데. 나의 지난날 후회하면서, 너의 장래를 경계하노라. 본성 다하고 천형하면, 삼제에 참여할 수 있지. 날로 달로 나아가리니, 유념하고 공경할지어다.)

106) 金壽恒, 『文谷集』 卷26, 「遺戒」

清晨發民家	맑은 새벽에 민가를 나서
夕暮躋大麓	저물녘에 큰산 기슭 오른다
大麓少人行	큰산 기슭에 인적 드물고
行行見麋鹿	가다보면 보이네 사슴 또 사슴
眷言我伯父	아 우리 백부께서는
隱身彼深谷	저 깊은 골짜기에 몸을 숨겼네
巖巖爲室宅	높은 바위로 집을 삼았고
衣食惟草木	먹는 것 입는 것은 풀과 나뭇잎
絃歌詠大道	거문고 노래로 대도 읊으니
所思匪珮玉	마음 속 소원은 벼슬 아니네
我願奉杖屨	나도 그 지팡이와 짚신 받들고
卒歲同藹軸	그분과 소요하며 지내고 싶네
富貴諒多畏	부귀하면 진정 꺼릴 것 많고
貧賤易爲足	빈천한 사람은 마음 평온해
所以綺皓輩	그 때문에 기리게 같은 은자들
肆志從所欲	호쾌할사 얽매임 없이 살았네 <sup>107)</sup>

곡운 석실을 왕래하며 지은 시이다. 김창협은 영평과 화천을 왕래하며 백부의 시에 차운하거나 백부와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시며 운자를 뽑아 시 짓기를 즐겼다. 다음은 농수정사에 관련된 시를 살펴보겠다. 김창협의 시는 다음과 같다.

稠疊青岑與翠巒	푸른 뒤편 푸른 언덕 뺨뺨이 늘어선 곳
小菴孤迥寄中間	그 중간 깊은 곳에 작은 암자 놓여 있네

107) 金昌協, 송기채(역) 『農巖集』 卷1, 「谷雲」

冥冥一枕希夷界      배개 위 희이 세계 공허하고 적막한데  
 枉遣奔泉吼滿山      샘물소리 부질없이 온 산에 포효하네<sup>108)</sup>

위의 시는 김창협이 부지암에서 농수정시에 차운한 것이다. 화악산의 푸른 산과 언덕들이 뽀뽀이 들어서있는데, 그 가운데 암자하나 외로이 서있다. 이런 적막한 분위기는 흡사 희이가 사는 세계인 듯 하다. 이런 조용함 속에서 물이 미친 듯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어 고요한 적막을 더 돋보이게 한다. 물소리로 인해 밖의 외부의 일은 차단되어 산속 적막 암자에서 조용히 자연을 관람하고 있는 김창협의 모습이 잘 느껴진다. 농수정사에서 시를 짓는 것은 김수증이 종종해왔던 일이었다. 김창협의 「不知庵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淸寒子(김시습) 이후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우리 백부가 비로로 그 곳에 거하였다. 처음에는 곧 매월대의 서쪽 와룡담 위에 정자를 짓고 임하였고, 崔孤雲(최치원)의 시어를 취하여 ‘籠水’라고 이름 하였다. 그 리곤 매일 지팡이를 짚고 그 사이에서 시를 읊었다.<sup>109)</sup>

하루는 곡운 김수증이 농암에 찾아가겠다고 하나 찾아가질 못한다. 이에 김창협은 시를 한 수 남긴다.

遲遲春日漸西傾      더디 가는 봄 해가 서산으로 기울는데  
 灑灑雙池只自淸      넘실대는 두 못은 변함없이 해맑아라  
 花外小車殊不至      꽃숲 밖 작은 수레 아직도 오지 않고

108) 金昌協, 송기채(역) 『農巖集』 卷3, 「不知菴次籠水亭韻」

109) 金昌協, 『農巖集』 卷24, 「不知菴記」 “自淸寒子之後, 歷數百年, 而吾伯父始居之. 其初卽梅月臺之西臥龍潭之上, 作亭以臨之, 取崔孤雲詩語, 名以籠水. 而日曳杖吟嘯於其間.”

隔簾無賴數禽鳴      주렴 너머 새들만 속절없이 우짖누나<sup>110)</sup>

오시겠다는 백부는 며칠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에 김창협이 아쉬운 마음을 새소리가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백부가 찾아와 기쁜 마음을 시로 표현한다.

安穩茅齋裏      편안한 초가집 여기 이곳에  
歸還養病身      돌아와 병든 몸 요양을 하네  
澗蔬疑肉食      시냇가 채소는 고기맛이요  
林雉應雞晨      숲 속 꿩은 새벽 닭 다름없어라  
隱几遲遲日      안식 기대 지루한 해를 보내고  
看花寂寂春      꽃을 보는 봄날도 적적하던 차라  
此時來伯父      때마침 우리 백부 찾아오시니  
驚喜倒衣巾      기쁨 겨워 버선발로 뛰어나갔네<sup>111)</sup>

너무 반가운 나머지 평소 식사하던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고 지루했던 나날들이 백부가 찾아오니 버선발로 나설 만큼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김창협의 마음을 잘 표현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서와 시를 주고받으며 백부에 대한 존경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문학적 교류를 통해 본다면 김창협의 정신적 지주가 김수증임을 알 수 있다.

사화로 아버지를 잃은 김창협, 김창흡 형제에게 김수증은 때로는 큰아버지이자 아버지의 역할 더 나아가서 문학적 벗이 되었다. 이런 김수증을 존중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이다. 후에 여러 조카들 중 김창흡이 이런 김수증의 학맥을 이었다. 김창흡은 백부가 죽고 난 뒤 『谷雲集』을 영남 감영에

110) 金昌協, 송기채(역) 『農巖集』 卷5, 「伯父許過臨有日, 而癡忤不至. 輒次乙亥七月題壁韻, 見意.」

111) 金昌協, 송기채(역) 『農巖集』 卷6, 「翼日夕, 喜伯父至.」

서 간행하였다. 이때 당시 경상도 관찰사로 김수증의 외증손인 李宜顯이었는데, 이 덕으로 대구 감영에서 간행하였다.

1715년 김창흡이 정착할 생각으로 화음동 입구에 谷口精舍를 짓고 화음동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백부처럼 곡운정사와 화음동을 정성스럽게 돌보지는 못했던 듯하다. 김수증은 생전에 채소와 꽃들을 키우며 화음정사지를 정성껏 관리했지만, 김수증이 죽고난 20년 뒤 1721년 어유봉이 아들과 사위와 함께 김창흡을 찾았을 당시에는 무명와나 삼일정을 포함한 여러 기물들이 사라지고 있었다고 한다.<sup>112)</sup> 그러나 다행히 어유봉이 아들, 사위와 함께 김창흡을 방문할 당시만 해도 송풍정은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어유봉과 김창흡은 송풍정에 올라 김수증이 있었던 때를 상상하며 시를 짓기도 한다. 김창흡도 「谷雲諸詠」에서 송풍정을 아름다운 장소로 꼽으며 송풍정에 관한 시를 남긴다.

有石天然礎	주춧돌은 본래의 돌 그대로여서
剛方臥澗中	시냇물 가운데 굳게 섰다
堪當米老拜	米老의 절을 마땅히 받을만하고

112) 魚有鳳, 『杞園集』卷12, 「東遊記」 “越一日甲午, 與兩郎尋華陰洞, 路傍有兩小石, 刻華陰洞門四字, 稍上得表獨立臺, 上松風亭, 坐少頃, 先生亦迫到矣, 亭在月窟巖上. … 遂渡溪而北, 玩人文石, 所刻河崑洛書先後天八卦及太極圖, 極其精巧, 其上卽三一亭, 亭毀已久, 而巖面刻字在也, 有知堂舊址, 階級石礎, 爲崩崖所沒, 向背不可詳. … 今之來也, 堂窩橋亭, 太半爲墟, 其墓存者, 亦皆樑摧桶破, 壞漏支梧, 而不知菴, 爲村僕所窟, 翳然土窟烟竇耳, 俯仰感傷, 懷不能已.” (하루가 지난 갑오일에 아들 여석운과 사위 홍상한을 데리고 화음동을 찾았다. 길가 양쪽으로 작은 바위가 있었는데 ‘華陰洞門’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조금 위쪽으로 가다 보니 외마로 우뚝 서 있는 臺가 보였다. 松風亭에 올라 잠시 앉아있자니 김창흡 선생께서 뒤따라 도착하셨다. 송풍정은 月窟巖 위쪽에 있다. … 계속해서 시내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 人文石을 살펴보았다. 인문석에는 河崑洛書와 先後天八卦 그리고 太極圖를 새겨 놓았는데 매우 정밀하고 공교하였다. 그 위에는 본래 三一亭이 있었다. 정자는 이미 훼손된 지 오래 되었으나 암벽에 새겨놓은 글자가 남아있어서 예전에 정자가 있던 자리임을 알 수 있었다. 정자로 오르는 계단과 주춧돌이 벼랑이 무너지면서 다 부서졌기에, 정자가 본래 어느 방향으로 세워져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 지금 내가 다시 와 보니 堂窩며 다리며 정자가 태반은 터만 남아있으며, 겨우 형체가 남아있는 것 또한 대들보와 서까래가 무너지고 비가 세어 근근이 버티는 정도였다. 그리고 부지암은 시골 종들의 소굴이 되어 황폐한 움집의 굴뚝처럼 되어 버렸다. 가만히 생각하니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을 그칠 수가 없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DB의 역을 따랐다.

不費魯般工      魯般의 재주도 필요치 않는다  
 越壑遙聽叱      골짜기를 넘으니 시비하는 소리 멀리하고자  
 踰尋巧架空      공교히 허공에 세운 정차를 찾아  
 憑軒衆妙集      난간에 기대니 묘한 것 모여들고  
 滿耳卽松風      소나무에 부는 바람이 귀에 가득 밀려오네<sup>113)</sup>

김창협에게 김수증은 존경하는 백부이자 문학적 벗이었다. 김창협은 김수증 사후에 문집을 간행하고 화음동 은거지에 들어가 곡구정사를 경영하는 활동을 펼친다. 이런 활동을 통해 농연형제들이 김수증의 은거의식과 문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농연 형제의 은거 태도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농연 형제는 백부 김수증처럼 완전한 은사의 길을 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김창협은 젊은 시절에 벼슬에 나아가 다시 은거를 하지 않았고 김창협 또한 처음부터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나, 시사에 일이 생겼을 때에는 편지나 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sup>114)</sup>

이런 점에서 김창협이 「不知菴記」에서 ‘백부가 시사에 관심을 가져 당나귀에 떨어진 희이에 빗댄 것은 옳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나귀에 떨어진 희이는 농연형제의 모습과 더 비슷할 것이다. 이런 점을 통해 본다면 농연형제의 은거 의식에 아쉬운 점이 남는다.

113) 金昌翁, 『三淵集』卷12 「谷雲諸詠」-松風亭

114) 이중호, 위의 논문, p.226

## 2. 谷雲九曲에 대한 諸家の 기록들

### 1) 茶山 丁若鏞의 춘천기행<sup>115)</sup>- 「汕行日記」

김수증 사후 그의 조카 창흡이 뒤를 이어 화음동을 경영하고 수많은 노론계 인사들과 교류를 한다. 화음동은 후에 조선후기 은둔생활의 대표 유적지로서 많은 시인묵객들의 귀감이 되었고 이곳을 찾아보고 느낀 바의 감회를 유감없이 작품으로 풀어내었다. 정약용도 그런 인물 중 하나였다.

1820년 다산 정약용은 당시 춘천 일대를 유람할 기회가 생긴다. 봄에 큰 형의 아들을 데리고 며느리를 맞아올 적에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 춘천을 향한 것이 정약용의 춘천여행의 시작인데, 첫 번째 여행 때는 미처 김수증의 화음동지를 둘러보지는 못하였다. 그 후 1823년 손자 大林을 데리고 춘천에서 며느리를 맞게 된다. 이를 계기로 두 번째로 춘천을 찾은 다산은 마침내 곡운정사지를 둘러보고 주변을 기록한 내용이 「汕行日記」이다.

곡운정사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산은 소양정에 올라 북한강 인근의 자연풍광을 감상한다. 소양정은 소양정 남쪽 기슭에 위치해 있다. 소양정은 김수증의 일가 뿐만 아니라 많은 시인들이 소양정으로 올라 시를 읊었다. 다산은 文山 李載毅(1772~1839)<sup>116)</sup>와 함께 소양정에 오른다. 이 난간에 조부인 김상헌의 시부터 김수증과 김창협, 김창흡 형제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정약용 또한 이 시들을 베껴 적음으로써 그 감회를 풀어내고 있다. 난간에 적힌 시들은 다음과 같다. <sup>117)</sup>

115) 다산의 춘천기행에 곡운구곡이 속해있는 화천군 사내면이 포함되는 이유는 당시 화천은 낭천군(狼川郡)이라는 명칭으로 영군현(領郡縣, 지금의 春川)에 속해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화천은 법률 제 350호에 의거하여 화천군 사내면으로 편입되었다. 『華川郡誌』, 화천문화원, 2008, p169

116) 文山 李載毅(1772~1839)는 본관은 全州. 자는 汝弘, 호는 文山이다. 조선후기 문인으로 문예에 뛰어났고 시 짓기를 좋아하여 명승지에 가면 시를 읊었다. 춘천 여행에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 동행해 무이구곡 운에 더하여 구곡시를 짓기도 한다. 저서로는 『문산집(文山集)』이 있다.

<金時習 - 「登昭陽亭 1首」>

鳥外天將盡 새는 저 밖에 하늘은 저 끝에 사라지고  
吟<sup>118)</sup>邊恨不休 읊조리는 중에 한은 멈추지 않네  
山多從北轉 산은 북쪽을 향하는 것이 많고  
江自向西流 강은 절로 서쪽 향해 흘러간다  
雁下沙汀遠 기러기가 먼 모래톱에 내려앉고  
舟回古岸幽 배는 그윽한 옛 언덕을 돌아간다  
何時拋世網 어느 때 세상만사 모두 잊어버리고  
乘興此重遊 흥을 타고 예서 다시 놀 수 있을까

『관동지』 춘천 읍지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는 흥을 붙인 것이 심원하고 경치를 묘사한 것이 진실 되어, 천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양정의 시로는 가장 으뜸이라고 한다.<sup>119)</sup> 그러나 가장 많이 차운을 남긴 시는 청음 김상헌의 「昭陽亭」이다.

<金尙憲 - 「昭陽亭」>

三月昭陽江上樓 삼월에 소양강 누대에 오르니  
樓前形勝最堪游 누대 앞 경관 제일 놀기 좋구나  
地迥天高擬滕閣 땅은 멀고 하늘 높아 등왕각 인가 여겼고  
渚清沙白似夔州 물가 맑고 모래사장 하얀 것이 기주와 같다  
杏花已落桃花老 살구꽃 이미 떨어지고 복숭아꽃 시들었으니

117) 정약용의 『與猶堂全書』과 각 문집을 참고하여 원문을 수록하였다. 丁若鏞, 『與猶堂全書』卷22, 「汕行日記」

118) 『梅月堂集』에는 ‘吟’이 ‘愁’로 기록되었다. 金時習, 『梅月堂集』卷13, 「登昭陽亭」“愁邊恨不休”(근심 속의 한은 끝이 없다.)

119) 심경호, 『茶山과 春川』, 강원대학교 출판부. p.170

王孫未歸芳草愁      왕손은 안 돌아와 꽃다운 풀 시름겹다  
 酒醒倚柱發長嘯      술 깨어서 난간 기대 휘파람 길게 부니  
 西山落日射牛頭      서쪽 산에 지는 해가 우두 산을 피추이네

김상헌은 소양정 난간에 기대어 서쪽에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등왕각과 우두에 소양정을 비유하여 아름다운 절경을 표현하였다. 등왕각은 당나라 고조의 아들 李元嬰이 洪州刺史로 있을 때 지은 누각으로 유명하다.

<金昌協 - 「歸路再上昭陽亭」>

山寺歸來意悵然      산사에서 돌아올 때 마음 섭섭하더니만  
 眼明還是此樓前      누각 앞에 이르르니 눈앞 바로 환해지네  
 闌干今古橫斜日      난간엔 예나 지금이나 햇살이 온통 내리쬐고  
 舟楫東西闕逝川      배 노저어 이쪽저쪽 강을 따라 구경하네  
 貌國秋容禾滿野      맥국의 가을 모습 벼가 들에 가득하고  
 牛村晚景樹生煙      우촌의 저녁 경치 나무에는 연기가 생기네  
 澄江最覺宜佳句      맑은 강은 고운시구 얻기에 알맞은데  
 安得詩如小謝妍      어찌하면 사혜련과 같이 어여쁜 시 얻을까

<金昌翁 - 「昭陽亭敬次先祖留題韻」>

昭陽江上有高樓      소양강 강가에 누대 높이 서 있는데  
 吾祖來臨曰可游      조부님 와 보시고 놀만하다 이르셨네  
 襟帶將無漢南地      산과 강이 둘러있는 한남 땅엔 없고  
 風流欲倒潁西州      풍류는 패서주를 압도하고자 하네  
 簾櫺搖蕩游魚樂      주렴, 기둥 흔들흔들 물고기들이 즐겨 놀고  
 沙渚微茫過鴈愁      백사장에 지나가는 기러기 수심 아득하다

北望迢迢生遠韻      북쪽 바라보니 아득히 먼 운치를 일어나고  
 靑嵐浮出慶雲頭      푸른 산빛 아지랑이 경운산 꼭대기에 떠 있구나

소양정이라는 공간을 통해 김수증의 일가들은 자신들의 감회를 유감없이 표현한다. 다산은 소양정을 지나 문암서원을 거쳐서 4월 22일 곡운서원에서 여러 현인들의 화상을 본 뒤 구곡을 관람하고 기문을 남긴다.

서원은 사액되지 않은 곳으로, 谷雲 金公 휘는 壽增이다. 이 주벽으로, 三淵 金公이 좌배, 明灘 成公<sup>120)</sup>이 우배로 앉았다. 또 그 원편 재실에 두 분의 화상을 봉안하였는데 곡운과 삼연 두 분의 진영이며, 오른쪽 재실에 또 두 분의 화상을 봉안하였는데 곧 諸葛武侯와 梅月堂 金公의 진영이다. 또 궤속에 두 분의 화상을 간직하였는데 尤菴 宋文正公과 谷雲의 아들 成川公의 진영이다. ... 그 나머지의 모든 화상은 約菴<sup>121)</sup>의 예알로 인해 같이 따라 들어가 상세히 보았는데, 梅月堂 金時習은 머리는 깎고 수염만 있으며 쓴 것은 조그마한 삿갓으로서 겨우 이마를 가릴 정도였고 갓끈은 염주 같았다. 곡운은 우아하고 후중한 체구에 사모를 쓰고 검은 도포를 입어 조정 대신의 기상이 있었다. 尤菴은 74세 때의 眞影으로서 鬚髮이 모두 희고 아랫입술은 선명하게 붉었으며 치아가 없으므로 턱은 짧았고 눈빛은 광채가 나서 1천 명을 제압할 만한 기상이 있었다. 삼연은 淸和整肅하며 복건에 검은 띠를 띠고 있어 山林處士의 기상이 있었다. 제갈 무후는 삼각 수염에 이마

120) 明灘 成揆(1647~1741)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昌寧 자는 仲一, 호는 明灘이다. 우암 송시열의 문인이며 1689년 기사환국 때 여러 선비들과 仁顯王后의 폐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다 좌천된다. 그 후 유배 되었다가 다시 벼슬길에 올랐지만 다시 파직되었다. 글씨에 능통하였고 곡운서원에 배향된다.

121) 約菴 吳淵常(1765~1821)은 본관은 海州. 자는 士默, 호는 約菴이다. 조선시대 문인이며 저서로는 『約菴集』이 있다.

는 뾰족하고 뺨은 활등같이 그려 마치 佛畫의 冥府像과 같았다. 이것은 당장 없애 버려야지 그대로 둘 것이 못 된다. 이곳에 臥龍潭이 있다 해서 무후의 진영을 걸어 놓았으나 아무런 의의도 없다. 이는 모두가 비천한 습속으로서 과감히 없애야 한다.<sup>122)</sup>

참관기를 보면 김수증의 곡운서원의 주변이 매우 잘 묘사가 되어있다. 김수증은 와룡담과 용의연 때문에 김시습과 제갈량을 추모하였는데 다신은 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신을 포함한 노론계 지식인들은 제갈량이 한나라 부흥을 위한 의리명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고루하다고 여겼다.<sup>123)</sup> 하지만 김수증은 유지당에 매월당과 제갈무후의 초상을 두고 주변 지형에 이름을 붙여 뜻을 기리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김수증의 행동에 다산 정약용은 비천한 습속이므로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한다.

그 뒤 곡운서원을 관람하고 돌아와 근처를 두루 관람 하고 기문을 남겼다. 기문에서 다산은 김수증의 곡운구곡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가졌다. 그 의견은 다음과 같다.

疊石臺는 院의 서쪽 1리가 되는 곳에 있다. 물속에 3~4개의 선돌이 있어 그 크기가 마치 비석만큼씩이나 한데, 두어 겹의 橫紋이 있고 위에는 사람이 앉을 수가 없다. 좌우는 편편한 밭과 큰길로서 그늘을 이룰 만한 수목이 없으니, 이곳은 아마도 隱士를 수용하지 못할 것 같

122) 丁若鏞, 장순범(역), 『與猶堂全書』卷22, 「汕行日記」 “書院未賜額, 谷雲金公【諱壽增】主壁, 三淵金公左配, 鳴灘成公右配. 又其左室安二像, 卽谷雲·三淵二公之眞也, 右室安二像, 卽諸葛武侯·梅月金公之眞也, 櫃中藏二像, 卽尤菴宋文正公及谷雲之子成川公之眞也. … 其餘諸像, 因約菴禮謁, 得從旁細觀焉. 梅月堂【金時習】剃而有鬚, 所戴者小笠, 僅可周額, 纓似念珠. 谷雲瑰偉彪厚, 紗帽黑袍, 有廓廟之象. 尤菴七十四歲之眞, 須髮純白, 下脣鮮赤, 無齒故頤短, 而眼彩燁然, 有氣壓千人之象. 三淵清和整肅, 幅巾緇帶, 有山澤煙霞之氣. 諸葛武侯三角鬚, 尖頂網頰, 如佛畫冥府之像, 決當洗草, 不宜留也. 夫以臥龍潭之故, 揭武侯之眞, 絕無意義, 皆陋習之當滌者.”

123) 심경호, 위의 책. p. 189

다.

隆義淵은 그 하류 수백 보 위치에 있다. 위에는 火田이 있고 곁에는 보리밭이 둘러 있어 기괴한 암석도 없고 그늘을 이룰 만한 수목도 없다. 다만 시냇물이 흐르다가 정체한 곳일 뿐인데, 무엇 때문에 九曲에 끼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明月溪는 院村 앞에 있다. 牛馬犬豕의 오염과 티끌의 잡된 것의 그 어지러움과 더러움을 형언할 수 없으며, 大橋가 걸쳐 있음으로써 수석이 오염되어 있으니, 이곳 역시 구곡에 넣기에는 불가능한 곳이다.

대개 臥龍潭 이상으로부터는 산세가 비속하고 물의 흐름이 또한 세차지 못하다. 그리고 뽕밭, 삼밭, 느릅나무, 버들 등의 그늘과 뻑뻑한 밭 도랑과 가옥들은 이미 인간의 속물이다. 다만 당시 정자가 여기에 있었고 이 노인이 늘 멀리 노닐 수 없어 보통 여기에 밭걸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의 3곡이 외람되어 9곡의 수를 채우게 된 것이다. 주자의 武夷權歌도 七曲·八曲에 이르러서는 아름다운 경치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7곡의 碧灘蒼屏과 8곡의 鼓樓寄巖이 오히려 취할 만한 것이 있었고, 9곡에 이르러서는 桑麻雨露의 별다른 인간 세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 사례로 미루어 보면 의당 臥龍潭 으로 제9곡을 삼아 平川의 入始로 여길 것이요, 그 정자나 마을 이상은 아마도 다시 취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것 같다.<sup>124)</sup>

9곡중 7~9곡은 우마견시가 물을 건너고 사람들이 어지럽게 다니는 인가

124) 丁若鏞, 장순범(역), 『與猶堂全書』卷22, 「汕行日記」 “疊石臺在院西一里, 水中立石三四枚, 大如碑塔, 有橫紋數重, 上不可坐. 左右平田大路, 無樹木可蔭, 此恐不可以充隱也. 隆義淵在其下流數百武, 上戴火田, 旁繞麥田, 無巖石之穽怪, 無樹木之蔭庇, 只是溪水之潭渟處也. 不知何故與之爲九曲也. 明月溪在院村之前, 牛馬犬豕之涉, 塵灰秕穰之雜, 已不勝喧卑, 而大橋跨之, 水煩石汚, 斯又不可以充額者也. 蓋自臥龍潭以上, 山色已庠俗, 水勢已委靡, 桑麻榆柳之蔭, 溝塍室屋之稠, 已是人間俗物. 特以當時, 亭宇在此, 老人不能每遠游, 尋常杖履, 多在此間, 故以上三曲, 得以濫竽於是也. 朱子〈武夷權歌〉, 至七曲·八曲, 謂無佳景. 然七曲之碧灘蒼屏, 八曲之鼓樓奇巖, 猶有可取, 至九曲則曰‘桑麻雨露, 別有人間’. 推是例也, 當以臥龍潭爲第九曲, 以作平川之始, 其自亭舍村閭以往, 恐不宜更取也.”

에 가까워 9곡 안에 들기 어렵다고 본다. 실제의 모습에서도(사진7~9)보이듯이 7곡으로부터 9곡으로 넘어가는 계곡은 밭의 하류에 비해 계천도 얇고 인가에 가까운 모습이 있다. 실제로도 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산 곡운구곡시를 붙이며 이름 붙인 것을 바꾸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이날 절승한 경관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말에서 내려 물가에 앉아서 혹은 술을 부어 서로 권하기도 하고 혹은 담배를 서로 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양치질도 하고 발도 씻으면서 오르내렸으니, 이는 대개 특별히 선택한 세 곳으로 7·8·9곡의 탈락을 보충하려는 생각에서였다. 傍花溪 위에 도착한 후 의논하여 개정하기를 1곡은 ‘網花溪’, 이 땅이 마치 桃源洞口와 같기 때문에 ‘傍’을 고쳐 ‘網’으로 하였다. 2곡은 ‘雪壁渦’, 새로 첨가한 것이다. 3곡은 ‘望斷碕’, 혹은 2곡을 ‘靈龜淵’, 3곡을 ‘雪壁渦’, 라 하고 망단기는 취하지 않았다. 4곡은 ‘靑玉潭’, ‘峽’을 고쳐 ‘潭’으로 하였는데, 본래는 제 2곡이다. 5곡은 ‘神女匯’, ‘峽’을 고쳐 ‘匯’로 하였는데, 본래는 제 3곡이다. 6곡은 ‘碧漪灣’ 새로 첨가하였다. 7곡은 ‘白雲潭’, 본래는 제 4곡이다. 8곡은 ‘鳴玉瀨’, 본래는 제 5곡이다. 9곡은 ‘臥龍潭’, 본래는 제 6곡이다. 이라고 하였으니, 이제야 명실 상부하다 하겠다.

대개 방화계 위로부터 청옥협에 이르기까지 6~7리 사이는 굽이마다 기절한데도 모두 빼놓고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운담 상은 소나 먹일 곳에 불과한데도 3·4·5·6곡이 속속 잇달았으며, 7·8·9곡에 이르러서는 외람되이 화려한 선택에 끼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보니 마치 재덕을 갖추지 못한 貴戚近臣이 함부로 公卿의 자리를 차지

하고 초야에 묻혀 있는 자는 훌륭한 포부를 품고도 늙어죽도록 버림을 받는 것과 같아 결코 순리가 아니다. 그리하여 삼가 고쳐보기를 이와 같이 하였는데, 비록 경솔한 처사로서 두렵기는 하나 公議에 있어서는 또한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sup>125)</sup>

기문을 짓고 다산 정약용은 九曲을 다 관람하기에는 산고개가 너무 험난하고 피로하여 식사를 하고나니 날이 어두워져 잠을 청했다. 일어난 뒤에도 산수의 경치가 빼어난 곳이 많아서 미처 바로 시를 한편도 짓지 못했다고 한다. 후에 4월 22일에 기록했던 의견을 가지고 5월 4일에 무이도가의 운을 차운하여 곡운구곡시에 화운한다. <sup>126)</sup>

序

塵塗無物養心靈	티끌 세상 아무데도 심령 기를 것 없어
僻處天藏水石清	유벽한 이곳에 맑은 수석 간직했네
須從百慮交喧地	온갖 생각 얽힌 어지러운 곳에서 와
醒記雲山瀑布聲	운산 폭포 소리에 깨우치네

1曲-網花溪

一曲溪頭葉繁船	一曲, 시냇가에 배를 매지 마라
網花纔肯放棄川	망화 비로소 달리는 내로 나가려 하네

125) 丁若鏞, 장순범(역), 『與猶堂全書』 卷22, 「汕行日記」 “是日每遇一勝, 必下馬臨流, 或酌酒以相酌, 或吸煙以相貽, 漱齒濯足, 以沿以洄, 蓋欲別選三處, 以補七八九之黜也. 既到傍花溪上, 卽評議改定曰, 一曲網花溪, 【此地如桃源洞口, 故改傍爲網】 二曲雪壁渦, 【新增也】 三曲望斷碕, 【或曰二曲靈龜淵, 三曲雪壁渦, 不取望斷碕】 四曲青玉潭, 【改峽爲潭, 本二曲】 五曲神女匯, 【改峽爲匯, 本三曲】 六曲碧漪灣, 【新增也】 七曲白雲潭, 【本四曲】 八曲鳴玉瀨, 【本五曲】 九曲臥龍潭, 【本六曲】 庶乎名實得允也. 蓋自花溪, 上至青玉峽, 其間六七里, 曲曲奇絕, 而曠不一取. 乃自白雲潭以上, 不過牛鳴之地, 三四五六, 續續相連, 以至七八九曲, 濫充華選, 如貴戚近臣, 無才無德, 而免攬公卿, 疎遠在野者, 懷寶抱器, 而終老見擯, 非理也. 謹茲改擬如此, 雖僭妄可懼, 而公議或亦恕之也.”

126) 丁若鏞, 장순범(역), 『與猶堂全書』 卷22, 「汕行日記」

誰知百疊靈源內  
靑起山根處處煙

누 알리 백첩의 영원 안에  
푸른 산기슭 곳곳에 연기가 날 줄을

二曲-雪壁渦

二曲天飛縹緲峯  
風湍上下競修容  
瑤屏玉壁仙游處  
已道雲梯隔一重

二曲, 하늘을 나는 듯 아련한 산봉우리  
날아내리는 여울 위아래 다투어 단장하네  
구슬 병풍 옥벼랑 신선이 노닐던 곳  
구름다리 건너놓아 한 겹이 막혔다네

三曲-望斷碕

三曲瞿唐欲退船  
蓬山弱水轉茫然  
幾人望斷碕頭路  
搔首踟躕也可憐

三曲, 구당협은 배 물리치려 하는데  
봉산과 약수 도리어 아득해지네  
꼭대기길 바라보며 몇 사람이나 포기했나  
머리 긁적이며 주저하는 모습 가련하기만 하네

四曲-靑玉潭

四曲澄泓浸雲巖  
垂蘿高葉裊氤氳  
湍如竹節抽爲氣  
石似蓮花拱作潭

四曲, 맑은 물결 흰 바위 잠기는데  
매달린 담쟁이잎이 간들간들 드리웠네  
여울물은 댓결같이 급히 흐름 기운 삼고  
돌은 연꽃 같이 빙 둘러 못 이루었네

五曲-神女滙

五曲春山深復深  
泠泠環佩響空林  
自從立得貞修願

五曲, 봄산은 깊고 또 깊은데  
냉랭한 패옥소리 빈 숲을 울리네  
이로부터 정수의 소원 이루리니

百洗人間未了心

인간의 온전치 못한 마음 백번이나 씻어주리

六曲-碧漪灣

六曲平漪翠一灣  
渾如江色映柴關  
飛湍急瀑誠何事  
不及澄泓自在閒

六曲, 잔잔한 물결 굽이굽이 푸르는데  
혼연한 그 강빛 가시 삼작을 비치네  
나는 여울 급한 폭포 그 무엇 때문인가  
징홍의 자재함에 미치지 못해서라네

七曲-白雲潭

七曲琳琅瀉作灘  
崩雲沸雪要人看  
仙凡雅俗何須問  
只是當時徹骨寒

七曲, 맑은 물 쏟아져 여울 되니  
구름 피듯 눈 끓듯 사람의 눈을 끄네  
신선 속인 관계없이  
이곳에선 찬 기운 뼈에 사무치네

八曲-鳴玉瀨

八曲盤陀側面開  
琮琤玉溜故潔洄  
勻天妙樂今如此  
不恨從前度險來

八曲, 반석이 비스듬히 깔렸는데  
옥을 굴리듯 맑은 물소리 변함없네  
자연의 묘한 음악 지금 이와 같으니  
험한 길을 거쳐온 것 한스럽지 않네

九曲-臥龍潭

九曲靈湫水湛然  
桑麻墟里帶晴川  
老龍不省人間雨  
春睡猶濃養麥天

九曲, 신령한 소 물이 맑은데  
상마 우거진 옛 마을 맑은 시내 끼었네  
늙은 용 인간에게 비 내릴 것 안 살피고  
곡식 기를 시절에 깊은 잠만 자고 있네

다산은 김수증의 곡운구곡 중 7·8·9곡을 제외하고 網花溪·雪壁渦·望斷碕·靑玉潭·神女滙·碧漪灣·白雲潭·鳴玉瀨·臥龍潭로 재구성을 하게 된다. 이름을 고치는 것이 실제와 맞지 않아 고치는데 비록 자신이 고치는 것이 경솔할지라도 바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래 다산 정약용은 은거처사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 은거처사를 자처하며 조정에 불리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몸 값을 불리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김수증의 화음동 관람과 김창흡의 곡구정사를 둘러보고 그들을 진정한 은사로 인정하기 시작한다.

## 2) 여러 제유들의 기록들

다산 이외에도 많은 인사들이 곡운을 살피고 교류하였다. 많은 기록이 있지만 김수증과 직접적인 교류를 한 인사들의 작품 속에서 ‘籠水亭’을 제재로 한 시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암 송시열은 김수증의 조부인 척화파 김상헌과 각별한 사이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김수증과도 문학적인 교류가 있었는데, 김수증이 곡운에 처음 들어가 곡운정사를 경영할 때 김수증의 부탁으로 「谷雲精舍記」를 쓰게 한다.

김수증이 화음동으로 들어가기 전 곡운정사와 서울 오갈 때 성천부사로 갈 당시 송시열은 다음과 같이 김수증에게 시를 남긴다.

故人巫山去      옛 친구 무산으로 가니  
非關夢雨雲      운우의 꿈에 관계된 것은 아니네

石室孤松在      석실에 외로운 소나무 있으니  
無令久待君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지 마오.<sup>127)</sup>

巫山雲雨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이 고사는 남녀합환과 선경의 설화를 뜻하는 말인데 김수증이 성천에 부임한 것은 김수증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김수증은 본디 책을 읽고 서예에 빠져 살아왔다. 또한 산수를 즐기고 은거를 열망하고 있어 일부러 지방현감자리만 골라서 역임하였다. 이러한 김수증의 상황을 시로 잘 풀어 낸 부분이다. 그 뒤에도 시와 서로 문학적 교류를 이어나갔다. 다음은 「농수정」시에 차운한 시이다.

夫君逃世在林巒      그대 세상 피해 숲 속에 있으면서  
名姓將無天地間      이름과 성 천지 사이에 없애려 하네  
客至頗知主人意      손님도 자못 주인의 뜻 알고  
不談時事對青山      시사에 대한 이야기 않고 청산만 대하누나<sup>128)</sup>

위 시를 통해 김수증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송시열과 이이 등의 구국 경영을 통하여 후학 양성과 출사를 위해 잠시 물러나 있는 공간으로 삼는다면 김수증은 시사에 관심도 없고 청산만 대하는 진정한 은거처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陶谷 李宜顯(1669~1745)<sup>129)</sup>의 시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곡 이의현의 할머니는 청음 김상헌의 손녀인 안동김씨고 김수증, 김수항, 김수홍 형제

127) 宋時烈, 이성우(역), 『宋子大全』 卷2, 「贈別金延之赴成川」

128) 宋時烈, 이성우(역), 『宋子大全』 卷2, 「贈別金延之赴成川」

129) 李宜顯(1669~1745)은 조선시대 문인이다. 본관은 龍仁, 자는 德哉, 호는 陶谷이다. 안동김씨 가문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그의 할머니는 청음 김상헌의 손녀이고, 이의현은 김창협(1651~1707)의 문인으로 김수증, 수항, 수홍과는 동기이다. 이의현은 문학에 뛰어나 숙종 때 대제학 宋相琦에 의해 명문가로 천거되었다. 문집으로는 『陶谷集』이 있다.

와 동기지간이다. 이 때문에 안동김씨 가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의현은 김창협이 아래에서 학문을 닦기도 하였다. 또한 이의현이 경상도 관찰사에 있을 적에 김창협을 도와 『谷雲集』을 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음 시는 김수증이 죽기 1년 전 이의현에게 농수정시첩을 보여주고 시를 차운하게 한다.

絕峽鳴泉繞翠巒	높은 협곡과 쿵쿵 흐르는 시냇물 푸른
	산봉우리 에워싸니
幽居清迥隔塵間	그윽한 거처는 아득히 진세와 떨어져 청명하네
從知人境元相得	사람과 경치가 원래 서로 부합함을 알겠으니
何用辛勤爲買山	어찌 굳이 고생하여 산을 살 필요 있겠는가 <sup>130)</sup>

이외에도 김수증에 대한 만사를 시<sup>131)</sup>로 남기는 등 김수증에 대한 존경심을 감추지 않는다. 이의현을 비롯해 다른 외조카들 또한 그에게 편지와 시를 주고받았다. 그의 외조카 玉吾齋 宋相琦(1657~1723)<sup>132)</sup> 또한 농수정의 운자에 맞춰 시를 지었다. 운자는 김수증의 『谷雲集』 卷1에 실린 「白雲嶺道中」<sup>133)</sup>에서 가져왔다.

130) 李宜顯, 성백효(역), 『陶谷集』 卷1, 「谷雲金先生 下示《籠水亭詩帖》, 命以續貂, 敬次以呈」

131) 李宜顯, 성백효(역), 『陶谷集』 卷1, 「谷雲先生挽」 “石室流風遠, 先生尙典刑. 爽襟清洒洒, 高節聳亭亭. 好古終全素. 含光自播馨. 塵寰難久寄. 飄馭忽冲冥.” (석실의 유풍 멀리 전해지는데, 선생이 여전히 전형이셨네, 상쾌한 흥금 시원하게 맑고, 높은 절개 곳곳하게 높으셨지, 옛것을 좋아하여 끝내 본분을 지켰고, 광채를 감추어도 절로 향기가 퍼졌다오. 티끌세상은 오래 붙어살기 어려워, 바람을 타고 홀연히 아득한 하늘로 올라갔네.)

132) 玉吾齋 宋相琦(1657~1723)는 본관은 恩津 자는 玉汝 호는 玉吾齋이다. 아버지는 예조판서 宋奎濂이고 어머니는 同知 金光燦의 딸인 안동김씨이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학식이 뛰어났다. 그러나 신임사화의 난을 만나 강진에서 죽게된다. 저서로는 『玉吾齋集』이 있다.

133) 金壽增, 『谷雲集』 卷1, 「白雲嶺道中」 “石路崎嶇繞碧巒, 跨驢閒向華陰間. 村人不解行藏意, 問我今胡更入山.”

曲曲溪流轟轟巒      굽이굽이 시냇물 흐르고 산은 뽀쪽뽀쪽  
 小亭清絕白雲間      아담한 정자 산뜻하게 백운 사이에 있구나  
 閒來不怕談時事      한가롭게 맘껏 시사를 말할 수 있으니  
 世上何人到此山      세상 누가 이 산에 오랴<sup>134)</sup>

마지막으로 寒水齋 權尙夏(1641~1721)<sup>135)</sup>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권상하는 이이와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이다. 때문에 김창협과 함께 송시열 아래에서 수학하며 김수증과의 교류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仙巖秋色政佳哉      선암의 가을빛이 진정 한창 아름다워  
 萬壑秋霜錦帳開      일만 골짜기 가을 서리 비단 휘장 열렸으리  
 淸夢忽隨飛鳥去      맑은 꿈이 불현듯 날리는 신발 따라가  
 玉簾臺畔共徘徊      옥렴대라 그 곁에서 서로 함께 배회하네<sup>136)</sup>

당시 부사로 있던 김수증이 갑자기 산수를 찾아가고 싶은 흥취가 일어나 권상하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권상하는 같이 가지 못하고 그 후에 절구 한 수를 보내 차운시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후에 김수증의 곡운구곡도첩을 구경하고 여러 승경에 운을 차운하여 시를 짓는다.

重重煙霧鎖千巒      중중 첩첩 구름 안개 일천 봉을 가렸는데  
 底事先生住此間      무슨 일로 선생께서 이 사이 머물렀을까  
 九曲寒溪秋月照      아홉 구비 차가운 시내 가을달이 내리비취

134) 宋相琦, 김기 박종훈 이관성 정만호 (공역), 『玉吾齋集』, 「次籠水亭韻」

135) 寒水齋 權尙夏(1641~1721)는 본관은 安東 자는 致道, 호는 寒水齋이다. 宋浚吉·宋時烈의 문인이다. 이이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정통 계승자이다. 저서로는 『寒水齋集』이 있다.

136) 權尙夏, 송기채(역), 『寒水齋集』 卷1, 「府伯谷雲金丈忽起尋源之興. 要與同行. 而病未能焉. 歸贈一絕. 次韻以呈」

隣渠恰似武夷山      무이산과 흡사함을 사랑하는 까닭일세<sup>137)</sup>

또한 농수정시에 운을 차하여 김수증에게 바친다.

幾道鳴泉幾疊巒      우는 샘 몇 줄기며 산봉우리 몇 겹인가  
仙家知在白雲間      흰 구름 그 사이에 선인의 집 있다네  
儂心正似庭前鶴      내 마음은 진정코 뜰 앞의 학 같아서  
孤夢秋飛桂樹山      계수나무 가을 산에 외론 꿈이 날아가네<sup>138)</sup>

위의 작품들에서 보이듯이 김수증이 지어 놓고 머무른 농수정의 장소는 수많은 문인들이 다녀간 장소이다. 이 장소를 통해 여러 문인들이 그와 문학 교류를 끊임없이 하였다. 『谷雲集』에 수록된 작품들은 대부분 산수유기와 잡록에 불과한 작품들이 대다수로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작품과 정사지의 기물을 제재로 수많은 문인들이 詩作한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의 영향력은 적다고 볼 수 없겠다. 이를 통해 김수증의 은거 활동과 곡운 구곡 경영이 노론계 인사들의 큰 귀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37) 權尙夏, 송기채(역), 『寒水齋集』 卷1, 「看金丈 谷雲圖. 次帖上諸勝韻」

138) 權尙夏, 송기채(역), 『寒水齋集』 卷1, 「復次籠水韻呈谷雲丈」

## VI. 結論

본고는 金壽增의 『谷雲集』을 중심으로 谷雲九曲 경영을 통한 문학 활동을 살펴보았다. 김수증은 곡운구곡 경영을 통해 산수를 즐기는 목적으로 단순한 생활공간을 꾸린 것이 아닌 자신의 정신세계를 담는 공간으로 경영하여 후에 노론계 사림들에게 귀거래향적인 장소로 거듭나게 되었다.

II장에서는 정치현실과 은거 지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己巳換局’을 기점으로 김수증의 은거 방향도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사환국 이전의 김수증은 장손의 역할과 은자의 역할 두 역할 사이에서 고민을 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기사환국을 통해 가문의 화를 입자 절속의 의지를 보이고 석실에서 두문불출하고 곡운경영에만 힘을 쓰는 은거처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II장에서는 주자의 武夷權歌의 연원을 통해 조선 16~17세기 구곡가에 미친 영향과 조세걸의 <谷雲九曲圖帖>작업과 김수증 일가의 「谷雲九曲歌」 화운 작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자의 무이구곡은 고려말 주자의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함께 전래되었가 16세기 이후로 구곡가 작업이 활성화 되었다. 16세기의 구곡가 작업은 주자를 존중하는 마음과 무이지와 무이구곡의 영향으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다 16세기 말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에 들어서자 본격적인 구곡 경영과 구곡시의 작업이 성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당시 성리학자들이 흠모하는 주자의 모습을 좇는 행위는 단순한 詩作활동이 아닌, 주자를 본받아 그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며, 이런 작업이 ‘구곡가’로 재탄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17세기에 들어서자 16세기 구곡가 작업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기존의 구곡가 작업은 주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작업이라고 한다면 17

세기의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자신들의 학맥을 잇기 위한 도구로 구곡가와 구곡 경영을 시작한다. 송시열의 화양구곡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예에 속한다. 송시열은 훗날 출사를 기약하기 위하여 화양구곡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며 자신의 학맥을 잇기 시작한다. 하지만 김수증은 이러한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기사환국으로 인해 집안에 화를 입자 평소 바라던 은거생활을 시작한다. 김수증은 은거를 하며 후학양성을 하기 보다는 작업은 김수증 본인의 학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구곡가와 구곡 경영에도 차이를 보이는 점일 것이다.

IV장에서는 제 2의 은거지인 화음동정사를 조성하게 된 경위와 정사경영을 통한 명명작업 그리고 김수증의 시문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사환국을 겪고 나서 완전한 은사의 모습으로 거듭난 김수증은 화음동 석실에서 기거하며 주자서에 빠진다. 이런 영향으로 화음동정사지의 공간 조성과 기물들에 대한 命名작업은 그의 성리학적 관념에 입각한 것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명명작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김수증이 단순 자연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공간 경영 속에서의 규칙을 통해 이름을 붙인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시문을 살펴봄으로 김수증의 문학 변화의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기사환국 이전에는 곡운이 은거하면서 서울과 곡운을 오가며 쓴 시에서도 보이듯이 문중의 장손의 책임감과 은사를 꿈꾸는 열망 사이에서 고뇌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사환국 이후에 완전한 은사로 거듭남으로써 시문을 통하여 유감없이 그의 은거 의식을 내보이고 주변의 일상적인 소소한 소재를 가지고 담담하게 시를 풀어낸다. 또한 이런 은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주로 연작시로 남겼는데 이러한 詩作은 그의 조카인 김창흡의 시작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V에서는 곡운구곡을 중심으로 펼쳐진 시문창작과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수증의 시와 글은 대부분 산수기와 잡록에 불과해 문학적으로는 많은 것을 남기지는 않지만, 후에 그의 조카들과 여러 문인들의 교류를 통해서도 그의 유기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일가와의 교류를 통해 조카들에게 은거의식의 영향을 다분히 물려주었고 이를 통해 김창흡은 김수증이 죽자 화음동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은거하며 후학양성에 힘을 쏟는다. 하지만 온전한 은사의 모습을 보인 백부의 모습과 달리 그의 조카들은 서나 소를 통하여 시사에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였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또한 다산 정약용의 산행일기 기록과 김수증과 문학적 교류를 가져온 노론계 인사들의 기록을 통해 곡운정사와 화음동일대가 여러 문인들에게 활발하게 회자되어온 공간이며 이를 통해 후에 노론계 인사들에게 귀감이 된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김수증의 구곡 경영을 통한 문학교류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비록 문집의 대부분은 산수기, 잡록에 불과하지만 후에 노론계 인사들의 귀감이 되는 제재로써 유기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본고는 조선 구곡가의 계보와 연관성을 많이 짓지 못하였고 소수의 작품에 한정하여 곡운구곡 경영을 비교 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6~17세기의 조선 구곡 경영의 흐름을 확장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화음동정사지의 성리학적 관념을 확장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김수증의 곡운경영 연구는 성리학적 공간 구축 과정을 통해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논의로 생각되며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1. 문집

『孤雲集』

『谷雲集』

『杞園集』

『農巖集』

『陶谷集』

『梅月堂集』

『文谷集』

『文選』

『四佳集』

『三淵集』

『宋子大全』

『與猶堂全書』

『玉吾齋集』

『浦渚集』

『寒水齋集』

### 2. 단행본

『華川郡誌』, 화천문화원, 2008.

유준영, 이종호, 윤지영(공저), 『권력과 은둔』, 북코리아, 2010.

심경호, 『茶山과 春川』,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5.

\_\_\_\_\_,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漢語大詞典』, 한어대사전출판사(중국), 1994.

### 3. 학위논문

윤진영, 「조선시대 구곡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경구, 「17~18세기 壯洞 金門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조지형, 「17~18세기 구곡가 계열 시가문학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황인건, 「谷雲 金壽增의 山水文學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4. 연구논문

강신애, 「조선시대 무이구곡도의 연원과 특징」,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2007

김인숙, 「곡운 김수증의 산수관에 관한 연구-곡운구곡도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0, 동아인문학회, 2015.

유준영, 「곡운구곡도를 중심으로 본 17세기 실경도발전의 일례」, 『정신문화연구』 3,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

\_\_\_\_\_, 「조형예술과 성리학 : 화음동정사에 나타난 구조와 사상적 계보」, 『한국미술사논문집』 1, 한국학 중앙연구원, 1984.

이경구, 「곡운 김수증의 은거 생활과 문예 활동」, 『한국학보』, 2004.

이봉규, 「조선후기 禮訟의 철학적 함의-17세기 喪服論爭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이종호, 「김수증의 문예지향과 가학전수」, 『대동한문학회집』 제31집, 대동한문학회, 2006.

\_\_\_\_\_, 「壯洞金門의 隱遁地(外圍) 經營과 金昌翁의 隱逸意識 : 梅月堂과

谷雲이 간 자리에 三淵이 등지를 틀다」, 『동방한문학』 제32집, 동방인문학  
회, 2007.

이효숙, 「구곡 문학 연구와 장소성」,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  
집』, 국제어문학회, 2013.

\_\_\_\_\_, 「조선 후기 서인 노론계 문인들의 구곡시와 장소성」, 『국제어  
문』 제59집, 국제어문학회, 2013.

## 5. 기타자료

<경향신문>, 1981년 4월 14일, 제 11면. “谷雲九曲圖는 實景山水畫 春城·  
華川の 溪谷과 地形일치”

한국고전번역원DB

한국콘텐츠진흥원DB

# ABSTRACT

## A Study on Kim Su-jeung's Management of Gugok in Gokun and Literary Activities

Choi Eun Hye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Gokungugok is a place that reflects the inner world of Kim Su-jeung (pen-name: Gokun, 1624-1701) who liked nature and admired Zhu Xi's affection toward Wuyjiuqu. After 1689, he retired from the world and managed his safe haven. The reason Kim Su-jeung managed Gugok in Gokun was not because he was fascinated by the beautiful natural landscapes and wanted to settle down there, but because he wished to manage the place as the optimal place that fit with his inner world.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how Kim Su-jeung managed Gugok as a dynamic and symbolic cultural space beyond a simple living space and the results from it. The study, therefore, explored his management of Gokun and cultural exchange based on Gokunjip, the material considered important in understanding his management of Gugok. The results found that literati's writing of poems on Gugok at the time was the work to create products from heightened mental activities beyond a simple

mimicking of writing poems.

In addition, following his grandfather, who sought life in a hermitage, Kim Su-jeung also practiced hermitage life through managing Gugok and established his own safe haven. This is differentiated from the cases of Kim Su-hang and Kim Su-heung, Kim Su-jeung's brothers who became victims of party strife and died without fulfilling their dreams. Furthermore, Kim Su-jeung's management of Haeumdongjeongsa was not just the process of appreciating landscapes in nature, but the process of materializing his inner world based on Neo-Confucianism in reality. This place later served as a homecoming place that people from the Noron faction visited after resign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way Kim Su-jeung managed and enjoyed Gugok with the agreement from his families and friends, exploring the mutual effect between him and Gugok and the effect he exerted on many classical scholars.